

“동학개미, 오시오!”... 문턱 낮춘 정일문 ‘MZ투심’ 잡았다



한투증 사장 ‘디지털 리더십’

여의도 증권가는 이제 완전한 ‘디지털 퍼스트’의 한복판에 뛰어 들었다. 대면 접촉을 가로막았던 코로나19가 금융에 대한 시선을 바꿔 놓았다. 개인 투자자들의 ‘손안의 금융’이 일상화되자 증권사들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일문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시장의 판도를 기만하게 읽고 ‘디지털 혁신 금융’이란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디지털 전환 패러다임에 발맞춰 ‘동학개미 운동’으로 대표되는 개인 투자자들과 디지털이 체화된 MZ세대에 금융의 문턱을 낮춘다는 것이 목표다.

한국투자

“개인·MZ투자자 접근 쉽게 해야” 鄭사장 ‘디지털 퍼스트’ 전환 속도 소수점 거래·신용관리업 등 개발 AI 펀드 등 혁신 모델로 큰 호응

증권은 지난해 말 14개 부서를 통합한 디지털본부를 출범, 자본시장 혁신금융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내부 조직의 디지털화로 내실을 다지고 고객들에게도 다양한 요구에 맞는 디지털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 사장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체계적 준비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미래를 위한 디지털 기반 마련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역동적 조직문화를 정착해야 한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조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사장의 ‘디지털 전환’ 경영은 3년 전부터 탄력을 받고 있다. 2020년 ‘온라인 금융상품권’ 출시를 시작으로 2021년에는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애플리케이션

‘미니스탁(ministock)’을 오픈했다. 미니스탁은 주식을 반드시 온전한 1주단위로 매매해야만 한다는 기존 상식을 깨며 가용 자금이 많지 않은 소액 투자자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용객 중 2030세대의 비중이 7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는 일상과 투자를 연결하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 ‘모이다(moida)’를 통해 MZ세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모이다는 ‘일상 속의 투자’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증권을 비롯한 은행·보험·카드 등 여러 금융사에 흠어진 고객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독자적인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 고객의 소비 패턴을 도출하고 관련 주식 종목을 추천해 준다.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른 토큰증권발행(STO) 부문에서도 시장 선점을 위한 공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STO 협의체인 ‘한국투자 ST프렌즈’를 결성하고 ST(토큰증권)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협의체에는 카카오펀딩 와토스뱅크가 시범 운영 파트너로 참여했

다. 카카오펀딩프라이즈는 분산원장 구축을 위한 기술 파트너로 합류했다. 한국투자증권의 발행 역량과 카뱅·토뱅의 플랫폼 역량이 시너지를 낸다면 국내 최대 ST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챗GPT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인공지능(AI) 분야에도 보폭을 넓히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2020년 7월 국내 첫 AI 기반 리서치 서비스인 ‘AIR’를 선보인 데 이어 ‘AIR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했다. AIR는 매일 쏟아지는 3만여 건의 뉴스 콘텐츠 계량 분석으로 선별한 뉴스를 투자자에게 알아보기 쉬운 리포트 형식으로 제공한다. AIR ETF는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 124개 종목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제공한다. 보고서는 ETF에 관한 설명은 물론 최근 수익률과 펀더멘탈, 피어 그룹 분석 등 알아보기 쉽게 시각화한 다양한 데이터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과 키워드 분석 등 자체적인 분석 모델을 활용해 주요 이슈와 연관된 ETF를 자동으로 찾아 제시해 준다.

정성욱 기자 sajikoku@

“리스크가 필연이라면 가치투자는 필수”...IB 수익률 1위 기염

“시장은 매 순간 어려웠고, 항상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해왔습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고 성장의 계기로 전환해 나아가야 합니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며 금융가가 온통 부산스럽던 올해 초,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가치를 역설했다.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에 이어 지난해 코로나19발 긴축 위기가 겹쳐지는

와중에도 사고의 전환을 통한 판단만이 ‘안정적인 수익’과 ‘리스크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가치전도의 리더십’을 드러낸 대목이다. 정 사장은 “우리 업의 본질은 리스크를 필연적으로 동반하고, 리스크에 대한 대가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사장의 ‘전화위복’ 경영은 어두운 시기를 맞아 오히려 빛을 발하고 있다. 지난해 주가가 곤두박질치며 금융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던 시기, 국내 증권사 중에서도 이를 대규모 정리하고로 대응하는 곳이 속출했다. 부동산 거래량이 뜰 떨어지고 투자매물이 마르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조직을 정리하고 많은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그러나 한국투자증권은 오히려 신입채용을 늘리고 과감한 신규 투자 사업 준비를 갖췄다. 내부에선 위기가 마다 직원을 보듬는 회사라는 자부심이 묻어나왔다.

올해 초에는 외부 인재 영입 등을 통해 프라이빗에쿼티(PE) 투자부 신설에 나

섰다. 기업의 눈높이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자 기관투자 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이란 결단을 내렸다. 거품이 가라앉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육석가리기’를 통해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 재빠르게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업계에선 1988년 한국투자증권(과거 한신증권)에 입사한 후 30여 년이란 긴 기간 대부분을 IB(기업금융) 파트 ‘외길’로 걸은 정 사장의 경험에서 비롯된 결단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국투자증권에서 5년

임에 성공하며 그동안 IB 부문의 골격과 내실을 다져온 정 사장은 지난해 시장 위축에도 IB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정 사장은 “회사 자산 및 사업의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통해 수익원을 다각화하고, 신사업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사업 확장은 이러한 노력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시장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구축해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성욱 기자 sajikoku@

HEENDY BEGINS!

THE HYUNDAI

행복한 힌디가 찾아옵니다

힌디의 하트랜드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반짝이는 행성을 찾아 떠난 힌디와 젤리씨앗단의 설렘 가득한 도착지, 하트랜드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 15m 초대형 힌디

360도 회전하는 초대형 하트 힌디와 명화 속 힌디, 포토매틱 미러룸 등 체험형 콘텐츠 ‘힌디 월드’

더현대 서울 5F 사운즈 포레스트 4. 28(금) - 5. 25(목)

📖 행복의 순간들

윤예지 작가의 힌디 그림책 <행복의 순간들>과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 40점이 함께 하는 글로벌 아티스트 기획전

무역센터점 10F 문화홀 4. 28(금) - 6. 6(화)

🛍️ 팝업 스토어

리빙, 문구, F&B 등 40종의 힌디 오리지널 굿즈

더현대 서울 5F 팝업스토어존 5. 4(목) - 6. 1(목)

현대백화점그룹 통합멤버십 H.point 현대백화점 | 현대아울렛 | 현대백화점명세점 | 더현대점 | 현대홈쇼핑 | 현대서점 | 현대그린푸드 | 한성 | 더한살림 | 현대리브 | 현대L&C | 저누스 | 현대엔탈케어 | 현대드림투어 | 현대이민이책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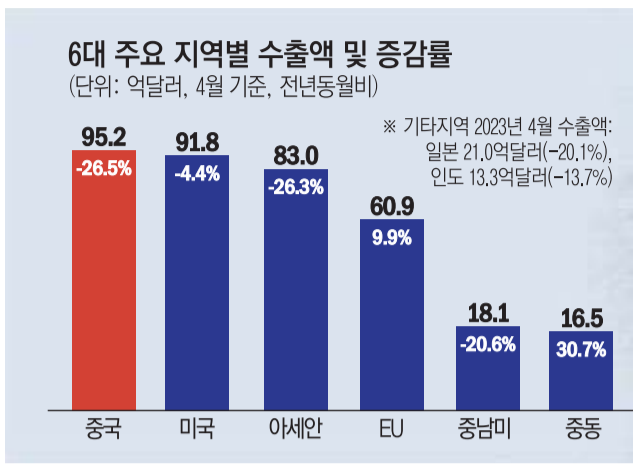
자세히보기

뼈아픈 對中 수출 부진... “中 IT 수요 회복에 실낱 기대”

韓 수출국 지각변동... 해법은

지난달 中 수출 95억 달러 26% ↓
반도체 32%·디스플레이 51% 줄어
기대했던 中 리오프닝 효과 시들
정부, 미국과 협력 강화에 초점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절벽에 서 있다. 수출 부진의 이유는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이유가 전면에 있지만 실질적 원인은 반도체 부진과 대중(對中) 수출 감소다. 특히 20여년간 한국의 최대 수출국 자리를 지켰던 중국으로의 수출 부진은 뼈아프다. 대중 수출은 11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이다. 눈에 띄는 점은 지난해 4월 30억 달러 넘게 차이 났던 대중 수출과 대미 수출이 올해 3억4000만 달러까지 격차가 줄며 최대 수출국 지위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외교 발 신경전이 거세지며 한국의 대중 수출이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중 수출은 95억2000만 달러를 기록, 전년 동월 대비 26.5% 줄었다. 대중 수출 감소세는 11개



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5일까지 품목별 수출액과 증감률을 보면 반도체가 23억2000만 달러로 31.8%나 줄었다. 디스플레이는 2억6000만 달러로 50.7% 감소했으며, 이차전지 역시 3000만 달러로 43.3% 줄었다. 중국은 2003년 이후 20여년간 부동의 한국 수출 1위 국가지만 최근 최대 수출국 지위마저 내줄 것 같은 분위기다. 지난달 1~10일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30억4500만 달러로 26억6600만 달러를 기록한 중국을 넘어섬으로써 2003년 이후 20여년 만에 최대수출국에 올라설 기세였다. 하지만 이후 대중 수출이 다소 회복되며 4월 전체로는 미국이 91억8000만 달

러를 기록, 중국과 3억4000만 달러 차이로 2위를 기록했다. 다만 1년 전 양국 수출액 격차를 보면 미국이 중국을 턱밑까지 쫓아왔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지난해 4월 대중 수출액은 129억5000만 달러, 대미 수출액은 96억1000만 달러로 그 격차가 33억4000만 달러에 달했으나 올해는 10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대중 수출을 늘릴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기대했던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도 크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국 경제활동 회복세에도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이 큰 정보기술(IT) 수요가 침체해 한국 경제 파급효과가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반도체 수출이 살아나지 않으면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줄어든다”며 “중국 부동산시장과 내수 소비가 살아나 중국 내 IT 재고가 소진

되고 신규 수요가 발생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높인다는 목표 아래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는 점도 한국에는 악재다. 한국은행은 ‘중국 리오프닝의 국내 경제 파급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중국의 자급률 상승 같은 구조적 요인은 중국 경제 회복의 (타 국가) 파급 영향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이 산업 고도화를 위해 지속해 자급률을 높여가면서 수입 수요가 기초적으로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외교발 대중 수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성과를 토대로 미국과의 무역·투자 촉진과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예정된 정상외교·통상장관회담 등과 연계한 비즈니스 기회 창출 및 수출 시장 개척 지원도 적극 추진해 나아갈 방침이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좋은 건강은 좋은 잠으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면의 질 개선 기능성을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바이탈뷰티 굿슬립가바 365’로
달콤한 꿀잠, 개운한 아침을 만나보세요.

아모레퍼시픽이 만든 수면 건강기능식품

- 기능성 원료인 L-글루탐산발효 가바분말의 인체적용시험결과 지표

지표	대조군	시험군(가바)
총 수면시간(분) (대조군 변화량 대비 280% 증가)	-	156.191
수면 전 대비 대조군 14.25분 감소(-39.3%)	14.25	25.72
시험군 25.72분 증가(13.18%)	-	25.72
수면 전 대비 대조군 10.25분 증가(37.94%)	10.25	10.20
시험군 10.20분 감소(5.45%)	-	10.20

- 식약처로부터 2중 기능성을 인정받은 맞춤 배합!

L-글루탐산발효 가바분말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나이아신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굿슬립가바 365, '가바'란 무엇인가?
아모레퍼시픽은 뇌 조직의 수면 관련 물질, 가바(GABA, gamma-aminobutyric acid)를 연구하여 외부에서 보충할 경우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L-글루탐산 발효 가바분말은 유산균 발효를 통해 수면과 관련된 가바와 동일한 구조로 제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면의 질 기능성을 인정받아 매일 꾸준히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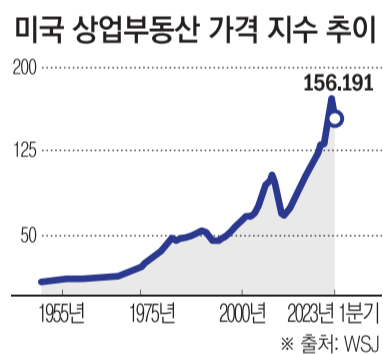
L-글루탐산발효 가바분말이 특별한 이유!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인 L-글루탐산발효 가바분말의 인체적용시험 결과 총 7가지 지표 [수면 효율/수면 잠복기/총 수면 시간/비렘수면 3단계/총 각성시간/입면 후 각성/피츠버그 수면의 질 평가 설문지의 총점 및 세부항목(수면 잠복기 변화량 평소의 수면 효율)]에서 유의적 개선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VITALBEAUTIE
*제조원 및 유통권면담 문의: (주)아모레퍼시픽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본 제품은 주요 온라인몰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美 상업용 부동산 부실대출 가득” 버핏 오른팔 멍거 ‘금융위기’ 경고

‘금융위기 소방수’ 역할 버크셔 SVB 사태 이후 이례적 ‘침묵’ 공실률 늘며 금융권 뇌관으로

‘투자의귀재’ 워런 버핏의 오른팔로 통하는 찰리 멍거(99·사진) 버크셔해서웨이 부회장이 미국 상업부동산 시장의 위험을 우려하며 또다름 금융위기 가능성을 경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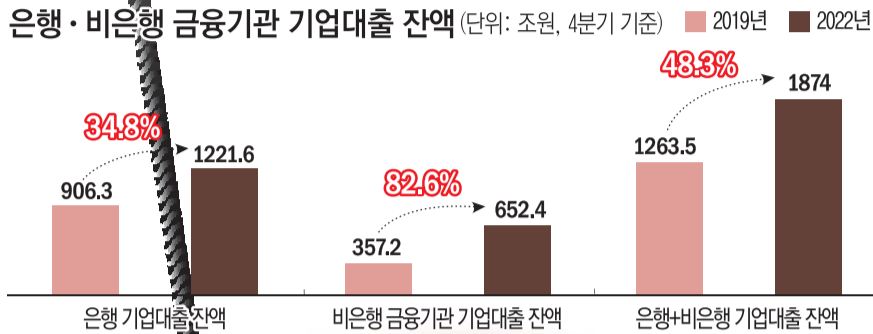
행위국면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었는데, 상업용 부동산 대출 위험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판단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상위 25개 시장의 공실률이 모두 증가했다. 샌프란시스코의 2022년 말 공실률은 19%로 3년 전 5%에서 급증했다. 멍거 부회장은 “문제가 있는 상업용 빌딩, 쇼펍센터, 기타 상업부동산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2008년과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은행에서도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업용 부동산은 금융권의 최대 뇌관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 지역 중소은행들의 상업용 부동산 노출비중이 큰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가치 하락, 중소은행의 건전성 우려,뱅크런(대량예금인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부실 위험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며 위기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그러나 SVB 파산으로 촉발된 은

'긴축 요요' 온 기업들... 3년새 고리대출 83% 급증

고금리 유동성 위기... 작년 4분기 기업대출 1874兆
2금융권서만 652兆... 연체율도 7년 만에 최고 수준
경기침체·부동산PF 위기 속 금융권 연쇄부실 우려



기업대출, 악소리는 악순환

2금융권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약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이 은행은 물론 금리가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까지 '닥치는 대로' 돈을 빌렸지만 결국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특히 2금융권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및 가계대출 연체율도 상승 추세여서 부실 폭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말 국내 금융권 전체 기업대출잔액은 1금융권이 1221조6000억 원, 2금융권이 652조4000억 원으로, 총 187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4분기 말(1263조5000억 원)과 비교하면 전체 기업대출 잔액은 3년 새 48.3% 증가했다. 특히 2금융권 기업대출잔액은 같은 기간 357조2000억 원에서 652조4000억 원으로 82.6% 급증했다.

3년 새 기업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이후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이 은행과 2금융권에 손을 벌렸기 때문이다. 한은의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중 전체 기업의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1189조3000억 원

으로, 전체의 95%에 달한다. 최근 기준금리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회사채 금리 역시 오르면서 회사채를 통해 직접 조달하던 대기업들도 은행 대출을 통해 자금 마련에 나섰다.

문제는 비은행 금융기관 즉, 2금융권을 중심으로 기업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2금융권의 기업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지난해 4분기 기준 2.24%로, 3년 전(1.62%)보다 0.62%포인트(p) 올랐다. 2016년 1분기(2.44%) 이후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저축은행 2.83% △상호금융 3.30% △보험사 0.15% △여신전문금융사(카드·캐피탈 등) 1.01%이다. 상호금융의 경우, 연체율이 3%를 넘어선 건 2020년 1분기(3.19%) 이후 처음이다. 여신전문금융사의 연체율도 2019년 3분기(1.16%) 이후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다.

2금융권에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 외에도 부동산 PF와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 등 부실 위험 요인이 산재해 있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키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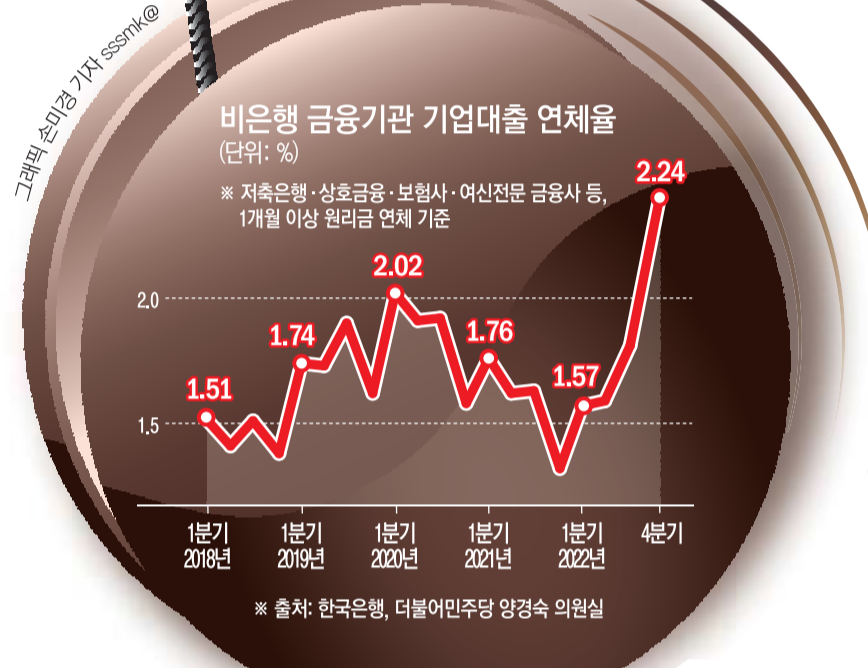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증권사의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10.38%로, 2020년 말(3.37%) 대비 7.01%p 급증했다. 보험사와 여신전문금융사의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PF 연체율도 각각 0.60%, 2.20%로 같은 기간

0.49%p, 1.92%p 증가했다.

2금융권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상승세다. 보험사의 지난해 4분기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0.37%로 전년 동기(0.27%) 대비 0.10%p 올랐다.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경우 각각 4.74%, 2.43%로 전년(3.75%, 1.92%) 같은 기간보다 0.99%p, 0.51%p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 불안 요인들로 인해 금융권의 연체율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경제성장률 전망이 좋지 않고, 부동산 경기침체 등 때문에 금융권 연체율이 낮아지기 힘들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저신용 차주의 규모가 큰 금융사의 부실 위험이 크기에 저축은행이나 카드 등 2금융권이 연체율 관리에 더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부동산 PF를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서 대규모의 부실이 발생할 징후는 아직 보이지 않기에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유예 등을 계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고금리, 고물가, 부동산 침체 등 현재의 어려운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당장 금융기관의 부실이 이어질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부동산PF 대출 부문 등의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부실)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유하영 기자 haha@



상아탑 뚫은 해커... 대학 4곳 중 1곳 정보보호 '미흡'

대교연 진단 결과 발표

교육부 '우수' 등급 받아도 '유출' 193개 대학 중 53곳 '보안 취약' 진단 항목 세분... 해킹 대비해야

대학 4곳 중 1곳은 해킹 피해를 입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교육부 진단에서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은 대학에서도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민간 대학 분야 연구기관인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가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22년 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를 분석한 데 따르면, 국공립·사립

일반대, 교육대·산업대 등 193개 학교 중 53개교(27.5%)가 정보보안 또는 개인정보보호 영역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 대학 4곳 중 1곳 이상이 취약한 보안 상태에 있는 셈이다.

대학은 전자정부법·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이다.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근거해 매년 정보보호 수준을 진단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정보보호 수준 진단은 '정보보안' 영역과 '개인정보보호' 영역으로 나뉘며, 진단결과는 우수(진단결과 80점 이상), 보통(70점 이상~80점 미만), 미흡(70점 미만), 미실시 등 네 단계로 나뉜다.

영역별로 진단 결과를 살펴보면 '정보보안'에서는 42개 학교(21.8%)가

미흡 평가를 받았다. 149개교(77.2%)는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 영역에서는 33개 학교(17.1%)가 미흡 평가를 받았다. 156개교(80.8%)는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았다. 22곳(11.4%)은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모두에서 미흡 등급이었다.

특히 지난해는 대다수 대학이 교육부 진단에서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았음에도 일부 대학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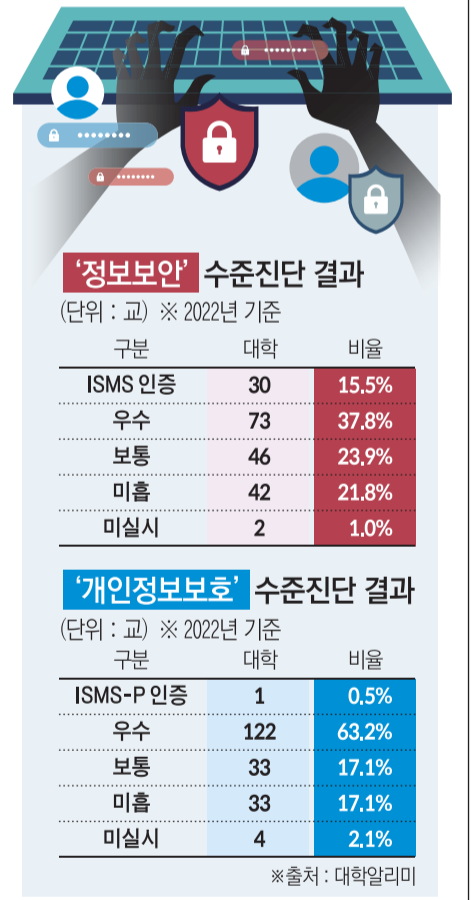
경북지역 국립 A대학은 지난해 11월 교내 사이트가 해킹돼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앞서 교육부 진단에서 정보보안 '우수', 개인정보보호 '보통' 등급을 받았다. 교육부 진단에서 개

인정보보호 '우수' 등급을 받은 서울지역 사립 C대학도 같은 조사결과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항이 확인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대교연은 대학이 수많은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이용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임은희 대교연 연구원은 "현재 수준 진단 지표에 '웹 취약점 점검' 등의 평가가 포함돼 있음에도 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에서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며 "점검할 취약점을 세분화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해킹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현경 기자 son89@



택시, 대중교통 포함되나... 법 개정 10년 만에 재시동

양경숙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포함하는 방안이 10년 만에 재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운영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택시와 택시승강장 등 택시 운행에 필요한 시설을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에 포함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는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시설·장비의 확충과 관련된 지원계획 수립, 각종 자금융자, 세액감면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중교통수단으로는 노선버스, 철도·도시철도 차량, 여객선 등이 포함돼 있고 대중교통시설에는 버스터미널·정류소·차고지, 도시철도와 철도의 역사·환승시설 등이 포함돼 있다.

양 의원은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택시와 택시정류장은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계획 수립, 각종 재정지원 및

대중교통 육성사업, 현황조사 등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시업계를 중심으로 택시운송업의 경영여건이 악화하고 택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개정안은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의 정의에 택시와, 택시승강장·차고지 등 택시 운행에 필요한 시설을 각각 추가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 택시 대체사업 및 택시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설치 사업에 필요한 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2005년 1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20대 국회까지 여러 차례에 발의됐으나 당대 국회 임기 만료 등의 사유로 폐기됐다. 특히 2012년 6월 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합당에서 발의했고 2013년 1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국제구범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됐다. 약 20년 만에 재추진되는 셈이다.

당시 정부는 택시법이 대중교통법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고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며 다른 교통수단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들었다. 2012년 당시 정부와 지자체는 택시에 연 1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면 추가로 연 1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양 의원은 "택시와 다른 대중교통수단 간 균형발전 도모하게 된다면 택시업계의 어려움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전망치>

美 경유 수요 7년래 최대 감소

“금융위기 이후 최악 경제 상황”

‘화물리세션’ 공포가 전 세계로 번지면서 경기침체 위험도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후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다고 진단한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중국 교통부인용해 고속도로를 달리는 트럭 수가 몇 주 동안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9일로 끝난 주간 기준 트럭 수는 전주 대비 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트럭 운행이 줄어들자 중국 상업용 경유 비축량은 지난달 초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화물 수요 감소는 중국의 3월 제조업 지표가 발표된 후 공개돼 우려를 더했다. 중국의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1.9에 그쳐 전월 대비 하락했다. 비제조업 PMI가 58.2로 2011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컨설팅업체 FGE의 미야 겐 중국 애널리스트는 “올해 하반기 중국의 경유 수요는 증가보다 감소가 더 클 것”이라며 “특히 서방에서 경제적 역풍이 불고 있는 만큼 중국은 제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내수에 의존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에선 경유 수요가 올해 2% 감소해 2016년 이후 가장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점쳐졌다. 또 유럽에선 원유 선물 대비 경유 프리미엄이 1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다.

전반적인 경유 수요 감소는 철도와 도로, 해상에 걸쳐 교역량 급감으로 화물물동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화물 리세션을

中 트럭 운행 일주일 새 8% 감소
美 해상화물 주문 작년의 반토막
전문가 “가계지출 악화 초기 신호”

시사한다. 실제로 CNBC방송에 따르면 4월 미국항구로 향하는 해상화물 주문량은 1년 새 반 토막이 났고, 지난해 말 기준 미국 기업들의 중국 제조 주문 건수도 4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S&P글로벌의 미국 연료·정유 책임자인 데브닐 초두리는 현 상황을 “2008~2009년 금융위기와 팬데믹을 제외하면 최악의 경제 환경”이라고 평했다.

네이션와이드이코노믹스의 벤 에이어스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유 수요 감소는 가계 지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초기 신호로서 광범위한 경제 선행지표로 작용할 수 있다”며 “경제 전반에 걸친 경기침체 위험과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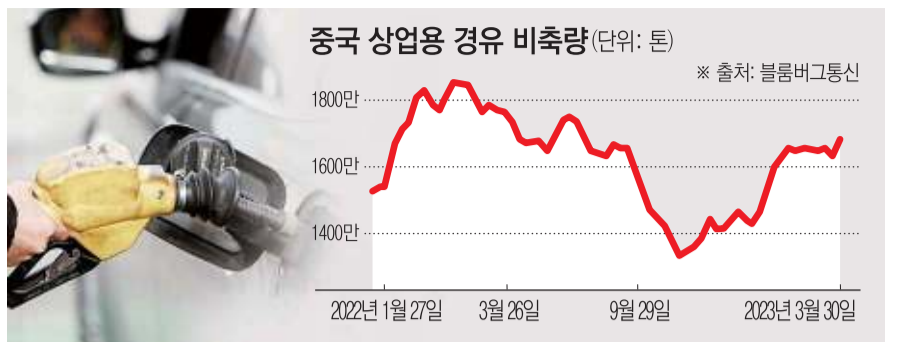
이런 이유로 주요 이코노미스트들은 내년 미국이 경기침체에 빠질 확률을 65%, 유럽은 49%를 제시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화물 리세션과 관련한 경기침체 징후는 시장에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인 지난해 5월 갤런당 5.34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미국 경유 가격은 지난달 말 2달러 선까지 추락했다.

경유 가격 하락에 기업들도 아우성이다. 경유를 제조하는 정유업체 발레로 주가는 지난달에만 14% 하락했고 마라톤은 6.2% 내렸다.

20개 화물업체와 철도, 트럭 등 운송 관련 대형 종목을 추적하는 다우존스운송평균지수도 2월 초 이후 7% 가까이 하락했다. 경기에 민감한 소형주를 담은 S&P스몰캡600지수도 올해 들어 0.5% 상승하는 데 그치면서 7%대의 S&P500지수 상승률에 크게 뒤처진 상태다. 경기동향 풍향계로 불리는 글로벌 물류 업체 UPS는 1분기 실적 발표 당시 올해 연간 매출 가이던스까지 하향하며 주가 급락을 겪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운송을 비롯한 경기민감주의 하락은 잠재적인 경기침체에 대한 투자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며 “역사적으로 이들 주식은 상품과 자재, 여행 수요가 둔화하는 경기침체에 더 빨리 매도됐다”고 설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ee0@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고속도로를 트럭들이 달리고 있다. 디트로이트(미국)/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 해운업계 ‘직격탄’

美 소비 위축돼 亞 소비재 교역 폭
12개 항구 수입량 ‘두자릿수’ 급감

아시아 해운업계가 미국발 ‘화물 리세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해상 운송이 몇 년 만에 가장 큰 침체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불안감에 해상 물동량이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컨테이너 선박 수요도 덩달아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초기만 하더라도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주 해안에는 집을 하역하기 위해 선박 100여 척이 줄을 섰다. 물동량 폭증에 북미 서안에서는 배가 일주일 이상 정체하는 체선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3년 새 분위기가 급격히 반전됐다. 4월 미국항구로 향하는 해상화물 주문량은 전년 대비 반 토막 났다.

해운 물동량 감소는 화물 운송료 하락으로 이어졌다. 컨테이너 운임 분석업체 제네타에 따르면 올해 초 중국 동부에서 미국 서부 해안으로 향하는 표준 40피트 컨테이너 화물 운송료는 1444달러였다. 지난해 3월 최고치인 9682달러 대비 85%나 급락했다. 세계 최대 소비국인 미국의 수입물량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전미소

매협회(NRF)에 따르면 올해 3월 미국의 주요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수입량은 전년 동월보다 28.2%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4월 역시 전년 동월 대비 18%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우려로 미국의 소비가 위축됐고, 소매업체가 상품 과잉 상태에 놓였다.

미국발 화물 리세션은 유럽보다 아시아 지역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작년 하반기 이후 유럽과 미국을 잇는 대서양 횡단 화물 수요보다 아시아와 연결되는 환태평양 컨테이너 무역 수요가 훨씬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 이유는 지역별 수입 품목이 다르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화물은 시멘트, 석고, 배터리, 화학 제품과 같은 산업 수요가 주를 이룬다. 반면 아시아로부터의 수입품은 주로 소비재다. 글로벌 화물 운송 플랫폼 프레이트스의 주다 레빈 연구책임자는 “현재 미국 화물 리세션은 부분적으로 많은 소매업자가 막대한 재고를 떠안은 데에서 비롯됐다”며 “이것은 유럽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환태평양을 횡단하는 시장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서양 횡단을 보면 그곳의 비율은 여전히 2019년 대비 두 배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변효선 기자 hsbun@

비맥스, 마침내

제 24회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대통령상 수상

이 영광을
약사님과
고객님께

비맥스

대통령상 KOREA BRAND AWARDS 2023

[광고심의일 2023-1659-00240] *2022년 24회/주최: 산업통상자원부/주관: 산업정책연구원 *허가사(제조자 또는 제조 의뢰자): (유)인공제약/판매사(주)녹십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꼭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워싱턴 선언·8兆 투자유치 이뤘지만... ‘결정적 한방’ 없었다

尹방미 기대만큼 진한 아쉬움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 이뤄진 이번 미국 국민방문에서 핵협업그룹(NCG) 출범과 8조 원 규모 투자유치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일부 현안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민방미에서 첫 일정으로 넷플릭스 CEO와 만나 한국 콘텐츠에 4년 간 한화 약 3조3000억 원에 달하는 25억 달러 투자 약속을 받아냈다. 거기다 한미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이 모이는 글로벌 영상콘텐츠 리더십포럼에도 참석하면서 국내에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소송을 벌이고 있는 ‘망사료’ 문제가 언급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공식석상에서 망사료는 거론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이런 가운데 넷플릭스의 막대한 투자 약속을 받으면서 망사료를 내지 않으려는 입장에

넷플릭스 3.3兆 역대급 투자 유치 망사료는 답판 못짓고 돌아와

방미 중 머스크 CEO 만났지만 기가팩토리 유치 끝내 결론 못내

韓 “워싱턴 선언, 사실상 핵 공유” 美 “핵 공유는 아냐” 즉각 선그어

힘이 실리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의 소송 판결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를 주요 이슈로 끌어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윤 대통령이 넷플릭스의 투자 약속을 받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에 USTR도 말이 없는 걸 보니 망사료 문제는 아예 의제로 올리지 않은 것 같고, 법원 판결을 앞두고 대통령이 무어라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원 판결이 나와야 대통령이나 정치권에서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테슬라기가팩토리는 윤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와 직접 만나 유치를 거듭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특별 제작한 브로슈어를 건네며 입지·세제·규제 지원을 약속하고 머스크도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도 했다. 다만 아직 한국은 ‘후보지’로 남아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머스크가 윤 대통령을 만나 내놓은 발언은 테슬라에게 한국이 중요한 시장이라서 한국 고객을 입장을 생각한 호의적 표현이라고 본다”며 “자원과 시장규모는 물론 우

리나라는 ‘노조 리스크’가 크다. 특히 정권에 따라 친노조 정책이 시행돼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1997년 GM 공장이 들어선 이래 외국기업의 자동차공장이 들어설지 못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세제·입지·규제 지원은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져 후보지로 검토되는 조건 정도만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 브로슈어를 통해 제안하는 혜택들을 전문가들과 논의해 구체적인 조건들로 만들어야 유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주요 의제로 올랐던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와 반도체지원법의 경우 공동성명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을 명기하고 논의에 나섰다. 다만, 아직 가시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아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핵심인 워싱턴 선언을 통해 발표된 NCG에 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채

택된 워싱턴 선언은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정례화와 함께 핵무기 운용에 대한 협의체 창설이 핵심이다.

NCG는 미 핵무기 운용에 한국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인 결정권은 여전히 미국에 있고 국내에 핵무기를 배치하진 않는다. 나토처럼 핵무기를 자국 전투기에 실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윤 대통령이 앞서 밝혔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핵기획그룹(NPG)보다 강력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아쉬움이 나오는 이유다.

입을출 경남대 극동연구소 교수는 “NCG로 우리 입장을 반영할 제도적 틀이지만 순전히 미국의 의지에 달린 것이라 실제로 반영될지는 모른다”며 “그래서 북핵 위협에 대응할 충분한 제도인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윤호 기자 uknow@



한덕수 총리, 미 하원 대표단 접견 (한덕수(오른쪽 첫 번째)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미 하원의원단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리위 공식 출범 김재원·태영호 징계절차 개시

8일 2차 회의때 징계수위 결정 최고위 복귀한 김 “대단히 송구” ‘자진사퇴’ 묻자 “윤리위서 판단”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일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김 최고위원은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 등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태 최고위원도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했다’,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 등 잇단 설화로 곤혹을 치렀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황정근 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었다. 황 위원장은 2시간 가량의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징계 사유는 징계 신고서와 윤리위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을 종합했다”며 “징계 결정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기 위한 자체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다.

그는 “김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고 한 3월 12일자 사랑제일교회 발언,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

일했다’는 강연, ‘4·3사건 기념일은 격이 낮다’는 발언 3가지가 징계 사유”라고 설명했다. 태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JMS 관련 SNS 게시, 제주 4·3사건 발언 2가지가 징계 게시 사유”라고 말했다.

김구 선생과 관련한 태 최고위원의 발언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황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논의는 할 것”이라고 했다. 2차 회의는 8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윤리위는 두 최고위원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김 최고위원은 지난 한 달간의 자숙을 끝내고 최고위원 회의에 복귀했다. 김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그 동안 저를 뽑아주신 당원 여러분, 우리 당 지지자 여러분,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대표님을 비롯한 동료 최고위원 여러분, 당직자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앞으로 당과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일 있으면 찾아가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다만 그는 ‘자진 사퇴 의향’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건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윤리위에서 (징계 여부를) 판단 하리라 본다. 윤리위에서 소명 요구를 하면 자세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된 발언들에 대해 사과할 의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여전히 사과의 말씀을 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김바리 기자 kimstar1215@

“가장 아픈 손가락”... ‘청년’에 공들이는 與

‘청년정책네트워크’ 출범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1일 오후 ‘청년정책네트워크 출범식’을 열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당 대표 직속 기구로 청년정책을 총괄할 계획이다. 김기현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병민 최고위원,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박수영·배현진 의원, 김재섭 도봉갑당협위원장 등 17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기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하지만 우리 당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이 청년 문제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에 고민을 계속했다”며 “공급자적 시각에서 모든 걸 풀려 하는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이 정책대상자인 동시에 입안자가 돼야 한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모습으로 정책이 만들어질 것”이

김기현 대표가 직접 위원장 맡아 2030세대 지지율 하락에 위기감 내년 총선 앞두고 표심잡기 총력

라며 “작고 소소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부터 시작해 큰 틀로 나아가갈 수 있으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정책을 생상하는 건 당과 정부지만 소비하는 건 국민이다. 소비자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고 정책이 입안돼야 한다”며 “청년이 주인이 되는 정책을 발굴해 청년도 정책의 수혜자가 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가 위원장을 겸임하는 당 위원회는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유일하다. 김 위원장은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당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유일한 위원회다. 그만큼 해야 할 숙제도 많고 숙제를 힘 있게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는 의지 담겨 있다”며 “최고위원도 두 명이나 있는데 이런 위원회가 없다. 그만큼 청년과 같이 호흡해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청년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최근 청년들의 마음이 정부와 여당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 리본 의뢰로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청년들의 지지도는 평균치를 밑돌았다. 특히 18~29세 중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25.7%로 모든 세대에서 가장 낮았다. 30대도 28.3%로 전체 평균 34.5%를 하회했다.

정당 지지도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에 대한 전체 지지율이 35.2%인 데 비해 18~29세의 국민의힘 지지도는 28.4%에 그쳤다. 30대의 지지율도 28.6%로 40대(26.6%)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같은 기간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각각 42%, 47.2%에 달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청년들의 마음을 돌릴 정책들을 쏟아낼 계획이다. 김바리 기자 kimstar1215@



김재원(가운데)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요일엔 오뚜기카레” 를 흥얼거리며
 카레향이 가득했던 주말 아침
 어릴적 골목길 단골 슈퍼 안에 가득했던
오뚜기 제품들
 산 정상에서 먹던 진~한 국물맛의
진라면!

제품 하나 하나에 담긴 추억과 사연을 모아
 귀중한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을 다채롭게 채우던 오뚜기,
 먹거리를 넘어 **아름다운 식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주)오뚜기 창립 54주년



*2023 제1회 오뚜기 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 수상작들입니다.

의협 '간호법 저지' 총파업 예고... 고민에 빠진 정부

이번 주 부분파업 돌입

의료계, 원격의료·공공의대 막아 2000년 이후 대정부 투쟁 완승 정부, 보건 위기 '관심단계' 발령 대통령 거부권행사 실효성 없어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결단 필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가 또다시 파업카드를 꺼내 들었다. 총파업은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부분 파업은 이주부터 시작됐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의료현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했다. 점검반은 의료이용 상황 파악, 비상진료기관(보건소 포함) 운영현황 점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의협이 주도하는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자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며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며 "다음 주부터 부분 파업



2020년 8월 26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가운을 벗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의료계는 당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 수습생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무기한 집단 휴진 등 파업에 나섰다.

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일에는 총파업 시기를 확정할 방침이다.

의료계를 달랠 수단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활용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결될 가능성이 커서다. 재의 요건은 재적의

원 과반이 출석한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 과반 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재의결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이 재의결을 돕는 꼴이 된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해도 결과를 뒤집긴 어렵다. 앞선 본회의에서

간호법은 찬성 179표, 기권 2표로 의결됐다. 민주당은 당내 무효표 1표만 찬성으로 돌리면 된다. 국민의힘 내 이탈표 발생 가능성도 있다. 어떤 경우든 거부권 행사는 여당에 정치적 부담이 크다.

정부내에서 '이미 앞질러진 물'이란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거부권에 준하는 '특별 조치'가 없다면, 의료계의 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간호법 처리 과정에서 의협 내 '온건지도부'에 대한 불만과 강경론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협은 그간 대정부 투쟁에서 모두 승리한 경험이 있다. 2000년 의약분업 때 의과대학 정원 축소와 의료인 면허 취소사유 축소를 얻어냈고, 2014년과 2020년에는 정부가 추진하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를 각각 중단시켰다. 특히 2020년에는 의협의 총파업에 동참해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끝내 재응시 기회를 얻었다. 이 일로 당시 의·정 갈등은 의료계의 완승으로 끝났다.

의협이 실제 총파업에 나선다면 정부로서도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노동조합 등에 내세웠던 '법치'를 의협에는 달리 적용하기 어렵고, 파업을 빌미로 정책을 중단하는 악순환의 고리도 끊어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도 의·정 관계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아직은 뚜렷한 움직임이 없다. 정부는 의료계의 추후 행보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오늘부터 송도서 亞개발은행 총회... 경제계 인사 5000명 출동

기재부, 역대 최대 규모 총회 전망 '노벨경제학상' 크레이머 등 참석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2일부터 4일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다.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이번 연차 총회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주최국)이 돼 행사를 주도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5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제56차 ADB 총회가 진행된다. 총회에는 ADB 회원국재

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 각국 대표단, 국제기구, 언론인, 학계, 금융계, 비정부기구(NGO) 등 5000여명의 참석이 예상된다. 현재까지 등록된 참석자 수를 고려할 때 역대 최대 규모의 총회가 될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있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다시 도약하는 아시아: 회복, 연대, 개혁'으로, 이에 맞는 다양한 행사(총 70여개)들이 진행된다. 주요 행사를 보면 2일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하는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와 아세안

(ASEAN)+3(한중일, 홍콩) 회의, 한국 세미나의 날 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관하는 한국 세미나의 날 행사에는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학교 교수가 참석해 코로나 19 이후 세계 경제의 변화와 회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안과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제시할 예정이다. 3일에는 총회의 시작을 선언하는 개회식과 거버너 세미나(패널토의), ADB 프로젝트 설명회, 한국 문화의 밤

(문화공연·리셉션) 등이 진행된다. 4일에는 비즈니스 세션(ADB 안건 통과), 거버너 플래너리(비공개회의), 한국기업 설명회가, 5일에는 지역별 회의, 차기 개최국(조지아) 행사가 열린다.

ADB 창립 회원이자 이번 총회의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한국의 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역대 기여를 홍보하며 아시아의 미래 아젠다를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ADB와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후기술허브를 내년에 열고, 한국이

2006년 설치한 신탁기금(e-Asia 전자협력기금)에 추가 출연을 약속하는 등 ADB와 협력도 강화한다. 아울러 이번 총회를 계기로 우리 인력·기업의 아시아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기재부는 "한국 세미나, 우리기업 홍보행사 개최를 통해 우리 민간·공공 기업들과 ADB, 해외 기관간 협력기회를 발굴하고, K-팝 공연(뉴진스) 등 문화공연 및 체험행사를 통해 한류를 확산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3월 온라인 배달음식 주문 13%↓ ... 역대 최대 감소

여행·교통서비스 거래액 95%↑

올해 3월 온라인 배달 음식 주문이 전년 대비 기준으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가 지속되면서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음식 배달 서비스 거래가 줄어든 탓이다. 반면 여행·교통 서비스 거래액은 95% 넘게 급증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3년 3월 온라인 쇼핑 동향'을 보면 3월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2조1056억 원으로 1년 전(2조4213억 원)보다 13.0%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개편된 2017년 이래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이로써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째 전년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다.

작년 12월 -7.9%, 올해 1월 -8.3%, 2

월 -11.5%, 3월 13.0%로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로 외부 활동이 늘면서 배달의민족 등 배달 앱으로 주문하는 음식 배달 서비스 거래가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역눌렸던 여행 소비가 분출하면서 3월 온라인 여행·교통 서비스 거래액은 1조7920억 원으로 전년보다 95.3% 급증했다. 전달(1조8283억 원)에는 137.5% 늘며 2017년 통계 개편 이래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바 있다.

온라인 문화·레저 서비스 거래액(1849억 원)도 66.2% 증가했다. 이외 온라인 의류 거래액이 14.0%, 음식료품 거래액이 8.1% 각각 늘었다. 3월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8조8379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0% 늘었다. 시장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거래액 증가 폭이



서울 강남구 배민라이더스 남부센터에 배달 오토바이가 줄지어 주차돼 있다. 뉴스시스

매달 두 자릿수를 기록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증가세가 갈수록 둔화하는 모습이다. 온라인 쇼핑 가운데 모바일 거래액은 13조79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다만 전체 거래액 중 모바일 거래액이 차지한 비중은 73.2%로 1년 전보다 1.4%포인트(p) 하락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정부, 내년 가루쌀 생산단지 5배로 확대

15일부터 재배단지 신청 가능

정부가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를 내년 5배인 1만헥타르(ha)까지 확대한다. 2026년까지는 4만ha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도 가루쌀 전문 재배단지 육성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전문 재배단지를 조성해 안정적인 재배 기술과 유통체계를 갖추도록 컨설팅 교육과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가루쌀을 균일한 품질로 대량 생산해 식량 원료로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다.

내년 전문 재배단지 규모는 올해 2000ha에서 5배 늘어난 1만ha까지 대폭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2025년 1만5800ha에 이어 2026년에는 4만2100ha까지 늘려 20만 톤의 가루쌀을 생산한다는 계획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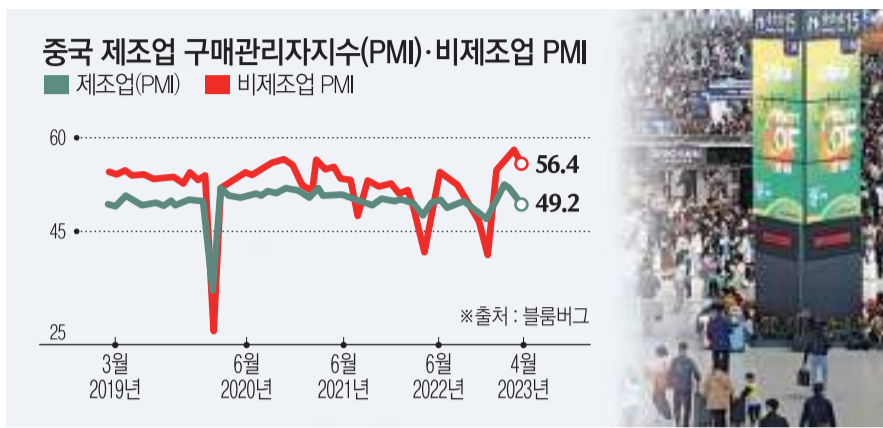
다. 내년 가루쌀 재배단지를 신청은 15일부터 31일까지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내년 가루쌀 재배면적이 30ha 이상인 농협조직(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이다. 벼 재배면적이 3000ha 미만인 시·군에 소재하고 있는 농업인은 가루쌀 재배면적이 20ha 이상이면 단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사업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과 시설·장비 지원사업 두 가지 유형으로 신청 가능할 수 있다. 재배단지로 선발된 모든 조직에는 전략작물직불금, 가루쌀 생산량 전량 정부 매입, 바로미2 종자를 지원한다. 전략작물직불금의 경우 가루쌀만 생산하면 ha당 100만 원, 겨울철 밀·조사료와 이모작하면 ha당 250만 원을 지원한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中, 노동절 보복소비 폭발했지만... 경제회복 지속 물음표

연휴 첫날 1970만명 기차로 이동
항공편 수요 전년보다 1594% ↑

식품·의류 등 매출 증가세 불구
4월 제조업 PMI, 전망치 밑돌아



중국 노동절 황금연휴(4월 29일~5월 3일)가 시작된 가운데 이틀간 여행을 떠난 사람 수가 1억10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해제 후 3년만에 처음 맞는 황금연휴에 중국 전역 관광지로 인파가 물리면서 소비도 급증했다. 다만 제조업 활동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비 반등에 따른 경제 회복세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철도그룹은 연휴 첫

날인 29일에만 전국적으로 약 1970만 명이 기차로 이동했다고 발표했다. 하루 기준 최대치다. 도로, 항공 등을 포함하면 5827만 명이 이동한 것으로 추산됐다. 연휴 둘째날 이동한 사람 수도 523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틀간 관광지를 찾은 사람이 1억1000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가장 심했던 베이징은 첫날에만 140만 명이 기차역을 드

나들었다. 전년 대비 1485%, 2019년 대비 27% 늘어난 수준이다. 베이징을 오가는 항공편 역시 같은 기간 각각 1594%, 14% 증가했다.

주요 상점도 인파로 가득 찼다. 대형 유통업체 판매는 전년 대비 21% 증가했고 주요 식품 체인 매출과 의류 판매도 각각 37%, 21% 늘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철회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보복 소비 심리가 황금연휴를 맞아 분출됐다는 평가다.

다만 소비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제조업의 부진이 큰 변수 중 하나다. 4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2를 기록해 전월(51.9)과 로이터통신의 전문가 전망치(51.4)를 모두 밑돌았다. 지수가 경기 위축 국면으로 다시 진입한 건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만이다. 통상 지수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넘지 못하면 경기 위축을 의미한다. 신규 수출 주문도 3월 50.4에서 47.6으로 떨어졌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4월 부진이 1분기 빠른 회복에 따른 기저효과라고 해명했지만, 중국 노동력의 18%를 책임지는 제조업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회복 불안을 부채질했다.

블룸버그는 가계소득 성장세가 약해지고 청년 실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한 점도

위기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3월 16~24세 청년 실업률은 전월 18.1%에서 19.6%로 상승했다. 생산과 고용 지표는 보복 소비 영향으로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4.5%로 발표된 것과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수요와 생산에서의 엇박자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더 개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쿼타이저인턴터네셔널의 주하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PMI 수치는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회복세가 다소 힘을 잃었고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핀포인트자산운용의 장지웨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활발한 휴가철 여행과 조용한 부동산 시장 활동 등 혼합된 지표와 더불어 이번 PMI 수치는 중국 정부가 2분기에도 재정과 통화에서의 지원 정책을 유지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대영 기자 kodae0@

동결이나, 인상이나

이번주 글로벌 긴축 사이클 '분수령'

주요국 중앙은행이 이번 주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금리 향방을 결정한다. 호주 금리를 또다시 동결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유럽중앙은행(ECB)은 금리인상 패달을 추가로 밟을 가능성이 크다. 주요국 사이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호주중앙은행(RBA)이 2일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6%로 동결할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긴 하지만 둔화세를 보이는 데다 RBA가 연착륙을 선호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장의 전망대로라면 RBA는 2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게 된다. 이즈미드발리에뱅크오브아메리카(BOA) 이코노미스트는 "RBA가 연착륙을 선호한다는 것은 경제 성장과 고용시장의 붕괴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은 더디게 내려갈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호주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대체로 금리인상을 멈추는 분위기다. 앞서 한국과 인도 역시 금리를 동결했다.

홍콩, 인플레이 둔화세 동결 가능성
"경제성장·고용시장 리스크 축소"

美·유럽, 0.25%p 추가 인상 유력
시장, 연준 '포워드가이던스' 주목

이와 반대로 미국과 유럽은 이번 주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연준은 3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를 내놓고, 유럽중앙은행(ECB)은 이튿날인 4일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발표한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0.25%포인트(p) 추가 인상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3월 이후 총 10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 금리 상단은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인 5.25%에 달한다.

블룸버그는 1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이 연율로 1.1%를 기록하며 2개 분기 연속 둔화했지만,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여전히 연준의 물가 목표치(2%)를 한참 웃도는 5%라는 점에서 미국이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전과 달리 이번

FOMC 정례회의에서 추가금리 인상 반대 여론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 경기침체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위원들이 늘었다는 이유에서다. 블룸버그가 지난달 21~26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가 미국이 향후 12개월 이내에 경기침체에 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의 관심은 통화정책 방향을 예고하는 '포워드가이던스'에 쏠리고 있다. 연준이 포워드가이던스를 통해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할지 주목된다. 블룸버그는 연준 내부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FOMC 회의 이후 내놓을 '포워드가이던스'를 두고 연준 내 격렬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3월 연준 위원 18명 중 7명은 기준금리 상단이 5.25%에 도달한 후 최소한 차례 더 금리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ECB도 4일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ECB가 기준금리를 0.25%p 올린 후 금리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親대만' 페냐, 파라과이 대선 승리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치러진 파라과이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콜로라도당의 산티아고 페냐 후보가 당선 확정 후 기뻐하고 있다. 개표율 92.24% 기준 페냐 후보는 43.07%를 득표해 27.49%를 얻은 중도좌파 성향의 에프라인 알레그레 후보를 크게 앞섰다. 중국과 대만의 대리전 성격이 띠어 이번 대선에서 '친대만' 성향의 페냐가 승리해 향후 미국·대만과의 연대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라과이는 전통적인 친대만 국가로, 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대만과 수교했다. 아순시온(파라과이)/로이터연합뉴스

비트코인 4개월째 상승... "10만달러 간다"

은행 위기·내년 코인 감산 등 영향
블룸버그 "년평균 260% 상승 징후"

지난해 하반기 부진했던 비트코인이 올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4월 한 달을 상승장으로 마감하면서 올해 들어 4개월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일 보도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2.5% 상승하면서 한때 2만9700달러(약 3893만 원) 선까지 올랐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4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80%가량 뛰었다. 이는 2021년 3월 6개월 연속 상승한 이후 가장 긴 오름세다. 비트코인 강세에 힘입어 이더리움이나 바이낸스 코인 등 다른 가상자산(가상화폐)도 약진했다.

비트코인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벗(정책 기조 전환) 기대감과 은행 위기에 따른 예금 불안정, 내년 예정된 신규 코인 감산 계획 등이 맞물리면서 강세를 유지 중이다.

CMC인베스트의 크리스토퍼 포브스

싱가포르 지사장은 "가상자산의 가장 큰 장점은 유동성에 있어 피피침 역할을 한다는 점"이라며 "유동성은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고 우리가 지금 보듯 가상자산은 계속해서 잘 거래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10년 흐름으로 볼 때 4개월 연속 상승은 이후 1년간 평균 260% 상승의 징후"라며 "이러한 상승은 비트코인을 현재 정해진 3만 달러에서 10만5000달러 선으로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BCA리서치 등도 비트코인의 10만 달러 시대를 점치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의 제프 캔들릭 가상자산 부문 대표는 보고서에서 "최근 발생한 은행 위기는 탈중앙화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비트코인의 이용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도움을 줬다"며 "연준의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도 비트코인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불확실성은 남아 있지만, 10만 달러 경로는 더 분명해지고 있다"며 "가상자산의 겨울은 끝났다"고 덧붙였다. 고대영 기자 kodae0@

JP모건, 美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인수

미국 대형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위기에 내몰렸던 미국 지역 중소은행 퍼스트리퍼블릭을 인수하기로 했다. 실리콘밸리뱅크(SVB) 붕괴 후 계속되고 있는 은행위기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퍼스트리퍼블릭을 압류해 매각에 들어간 결과다. 이로써 퍼스트리퍼블릭은 설립된 지 3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부(DFPFI)는 이날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퍼스트리퍼블릭을 폐쇄, 소유권을 가

져왔고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파산관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FDIC는 퍼스트리퍼블릭 입찰에 참여한 대형은행 중 JP모건을 인수자로 최종 결정했다.

JP모건은 약 1730억 달러(약 232조 원)의 대출과 300억 달러의 유가증권, 920억 달러의 예금을 포함한 퍼스트리퍼블릭 자산 대부분을 인수하게 된다. FDIC는 인수 조건으로 퍼스트리퍼블릭의 대출에 대한 손실 및 복구 비용 부담을 JP모건과 분담하기로 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불가능한 인수·합병(M&A)이라고 블

룸버그는 지적했다. JP모건은 미국 전체 예금액의 10%를 차지하는 대형은행이기 때문에 미국 규정상 당국의 특별조치 없이도 다른 은행을 인수가 불가하다.

FDIC는 성명을 내고 "이번 거래에 따라 미국 8개 주에 있는 퍼스트리퍼블릭의 84개 점포가 오늘부터 정상 영업시간부터 JP모건체이스 지점으로 재오픈할 것"이라고 밝혔다.

퍼스트리퍼블릭은 198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설립된 미국 14위 은행이다. 부유한 고객에게 저리에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내주고 예금을 유치하면서 성장했다. 그러나 3월 10일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면 타격을 입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성수기 대비하는 항공업계... 인력·노선 정상화 속도전

항공연휴·휴가철 수요 선 대응

항공업계가 항공연휴가 많은 5월을 시작으로 돌아오는 여름철 성수기에 대비해 인력 채용, 노선 증편 등 여행 수요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일부 항공사는 여행객들이 코로나 19 사태 이전 수준처럼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적 항공사의 국제선 여객수는 987만757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61만9204명) 대비 16배 증가했다.

전체 국제선 여객수의 약 45%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했다. 대한항공(273만명)과 아시아나항공(174만명) 등 대형 항공사(FSC)를 이용한 국제선 여객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약 57만명)보다 8배 가까이 늘었다.

1분기 국제선 여객 1000만명
국적기 이용객 1년새 16배 쑥

항공연휴 많은 5월 맞아
진에어·제주·이스타항공 공채
아시아나 인천~사이판 증편

나머지 541만 명은 LCC(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했다.

여행객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항공사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진에어는 지난달 12일부터 23일 △경영전락과 △재무 및 회계 △영업 △운송 서비스 등 8개 부문에서 신입·경력 일반직 사원을 공개 채용했다. 2018년 9월 이후 처음 이뤄지는 일반 사무직 신입사원 공개 채용이며 올 2월 신입 객실 승무원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주차장에 항공기들이 대기하고 있다.

뉴스시스

용 공고 이후 두 달 만이다. 제주항공도 지난달 14일 신입 객실승무원 채용을 시작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다. 3년 만에 재운항에 나선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말부터 신입·경력 직원을 공개 채용했다.

LCC 관계자는 "인력 운용을 코로나 이전으로 정상화하는데 항공사마다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늘어나는 수요에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울 만큼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항공사들은 여행객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노선 증편에 나섰다.

최근 아시아나항공은 다가오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인천-사이판 노선을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매일 운항하기

로 했다. 운항 일정은 오후 9시 25분에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다음 날 오전 2시 55분 사이판공항에 도착한다. 돌아오는 편은 현지 시각 오전 4시 20분에 사이판공항을 출발해 오전 7시 55분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앞서 여름 성수기 전인 지난달 30일부터 6월 30일, 이후 9월 1일부터 10월 28일까지는 같은 운항 일정으로 주 4회 운항한다. 해당 노선에는 비즈니스 8석, 이코노미 180석으로 구성된 차세대 친환경 항공기 A321-NEO 기종을 투입한다.

대형항공사 관계자는 "아직 코로나 이전만큼 여행객 수가 늘어난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추세라면 성수기 때에는 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항공사마다 인력 확보, 노선 증편 등을 통해 운항 차질이 생기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LG전자가 구글과 손잡고 경기도 남양주시 부평초등학교에 교육용 IT기기 및 솔루션 등 최신 에듀테크를 집약한 'LG-구글 미래교실'을 조성했다고 1일 밝혔다. LG 클로이 가이드봇이 부평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교육을 돕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LG-구글 "미래교실서 디지털 인재 육성"

AI 선도학교에 에듀테크 집약

LG전자가 구글과 함께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 교육 공간 조성이나선다.

LG전자는 최근 구글과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인공지능(AI) 교육 선도 학교인 부평초등학교에 다양한 교육용 IT(정보기술) 기기와 솔루션 등 최신 '에듀테크'(에듀케이션 테크놀로지 합성어)를 집약한 'LG-구글 미래교실'을 처음 조성했다고 1일 밝혔다.

LG-구글 미래교실은 디지털 교육에 최적화된 공간이다. 구글의 교육용 SW 플랫폼 '클래스룸'을 기반으로 전자칠판, 교육용 노트북 크롬북, 태블릿 PC인

울트라 탭, 클로이 로봇 등을 수업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구글 클래스룸은 수업 자료 및 일정 공유, 과제 제출과 화상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학습 플랫폼이다.

교실에 설치된 LG 전자칠판은 화면 내 간단한 조작만으로 칠판, 영상,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으로 간편하게 전환하고 다양한 교육용 템플릿을 제공한다.

교실에서는 LG 클로이 가이드봇이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AI 교육을 돕는다. 학생들은 로봇을 제어하는 앱을 만들어 로봇을 움직이거나 로봇 전·후면에 탑재된 27형 디스플레이에 직접 만든 영상이나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장효진 기자 js62@

대세는 친환경차... 1분기 내수판매 44% 급증

국내 완성차 5사 10만대 육박
하이브리드 6만대 1년새 50%↑
하반기 신차 대기... 판매 기대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올해 1분기 친환경차 내수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해 10만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자동차 통계월보에 따르면 1-3월 완성차 5사(현대자동차·기아·한국GM·르노코리아자동차·KG모빌리티)의 친환경차 국내 판매량은 9만3553대로 지난해보다 43.7% 늘었다. 전기차(EV)는 3만1337대가 팔려 작년 1분기보다 33.8% 증가했다.

업체별로는 현대차가 전년보다 26.1% 늘어난 1만7202대로 가장 많았다. 기아는 1만3938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5% 증가해 성장 폭이 가장 컸다. 한국GM은 볼트 EV·EUV 197대를 팔았다.

하이브리드(HEV)는 올 1분기 6만302대가 판매 돼 전년 동기보다 49.



경기 화성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기아 EV6 GT가 전시돼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9% 늘었다. 전기차 가격에 부담을 느끼고 충전 인프라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는 이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작년말 출시된 현대차의 7세대 그랜저 하이브리드(1만3462대)는 1분기 전체 하이브리드 판매량의 22.3%를 차지했다.

현대차의 1분기 하이브리드 내수 판매량은 2만8077대로 전년(1만2942대)의 2배를 넘었다. 그랜저 신차효과가 주요 원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아에서는 대표 인기 차종인 쏘렌토 하이브리드가 1만11대로 판매량이

많았고 K8 하이브리드(7845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7169대)도 각각 5000대 넘는 실적을 달성했다.

현대차 넥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소연료전지차(FCEV)는 올 1분기 1914대의 내수 판매량을 기록해 작년 동기보다 32.7% 늘었다.

친환경차 국내 판매는 2019년(11만343대) 처음 10만대를 돌파했고,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로 자동차 생산량이 감소한 2021년(23만1917대)과 지난해(31만7927대)에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업계에선 하반기에도 출시 예정인 친환경차 신차 라인업이 다양한 만큼 판매량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차는 2세대 코나 일렉트릭을 최근 출시한 데 이어 5세대 완전전경 싼타페 하이브리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기아는 두 번째 전용 전기차인 대형 플래그십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9을 상반기 중 국내 시장에 내놓는다. KG모빌리티도 인기 차종인 토레스의 전기차 모델(토레스 EVX)을 하반기 출시한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세혜택에 수주확대"... K-배터리, 美 IRA 수혜 가시화

올해부터 AMPC 직접적 혜택
LG엔솔 1분기 영업익 중 1003억
SK온은 2025년까지 4배 이익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국내 배터리 업계의 수혜가 본격화하고 있다. 첨단 제조 세액공제(AMPC)라는 직접적인 혜택과 함께 현지 완성차업체들의 협력 요청이 늘어나는 간접적인 수주확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IRA 효과'가 국내 주요 배터리 업체들의 영업실적에 반영되고 있다.

올해 1분기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4.6% 증가한 영업이익 6332억 원을 기록했다. 1분기에만 지난

해 영업이익(1조2137억원)의 절반 이상을 벌어들였다.

호실적의 배경에는 IRA의 세부 조항인 AMPC 효과가 있다. AMPC는 미국 내에서 생산·판매한 배터리 셀에 대해 킬로와트시(kWh)당 35달러, 모듈은 1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항이다. 현지에 생산공장을 둔 배터리 업체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부터 영업이익에 AMPC 예상 금액을 반영하기로 했다. 1분기의 반영 금액은 1003억 원에 달한다. 전체 영업이익 6332억 원의 15.8%를 AMPC로 번 셈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에만 약 1조 원의 영업이익을 AMPC로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분기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SK온'도 올해부터 수천억 원 규모의 세액공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컨퍼런스콜에서는 "2025년까지 AMPC로 약 4조 원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국에 배터리 생산공장이 없어 국내 배터리 3사 중 유일하게 AMPC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삼성SDI는 스틸란티스 합작공장이 가동되는 2025년부터 수혜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합작공장 건설 등으로 미국에 내 생산 능력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배터리 업체가 받는 AMPC 혜택도 커지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국내 배터리 3사가 2023년까지 최대 180조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갤럭시북3·울인원·데스크탑 삼성전자 PC 삼각편대 출시



삼성전자는 2023년형 '갤럭시북3'〈사진〉, '삼성 울인원', '삼성 데스크탑' 등 PC 신제품 3종을 출시해 국내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신제품 3종은 모두 최신 인텔 13세대 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했다. 갤럭시북3는 '갤럭시북3 프로'의 프리미엄 슬림 메탈 디자인을 적용했다. 15.4mm의 두께와 1.57kg의 무게로 휴대성을 높였다.

갤럭시북3는 39.6cm 디스플레이에 그라라이트, 실버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가격은 109만 원부터 시작된다.

2023년형 PC 신제품 3종은 삼성전자의 다양한 갤럭시 모바일 제품과의 연결성을 대폭 강화했다.
장효진 기자 js62@

“새 車경험이 디지털 혁신… 英 그레나디어 韓 질주할 것”

탐방기UP

車 온라인 판매·관리 플랫폼

강성근 차봇모빌리티 대표

“차량 구매부터 관리, 판매까지 모바일티스타트업으로서 전자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전체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겠다.”

강성근(사진) 차봇모빌리티 대표는 1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디지털 전환의 기회를 맞이해 모빌리티플랫폼으로서 정의되고 싶어하는 스타트업”이라며 ‘차봇’이라는 브랜드를 이같이 밝혔다.

차봇모빌리티는 B2C(기업·소비자간 거래) 플랫폼을 지난해 론칭해 약 6개월 만에 40만 다운로드가 나오고 있다. 특히 모빌리티플랫폼으로서 서비스적인 기능 이하나씩 추가되면서 조금씩 소비자들의 반응을 일으키는 중이다. 최근에는 영국 자동차 기업인 이네오스 오토모티브의 첫 오프로더 그레나디어의 한국 공식 수입사로도 이름을 알리고 있다.

강 대표는 “스타트업으로서 빠르게 진입할 수 있고, IT 대기업 서비스들과 경쟁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자동차라는 특수한 시장을 공략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강 대표는 “전기차도,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로 결국 모빌리티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데 가장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자동차 시장”이라며 “자동차에 대한 경험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이 다양한 디지털 혁신의 기회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이 차량을 구매하려면

디지털 전환기 모빌리티는 기회
보험사 추천·정비까지 앱으로
차량 인도 시 신차 패키지 제공

그레나디어 공식수입... 7월 예약
“국내에 없는 브랜드 추가 수입”

전시장을 찾아가거나 딜러를 만나야 하는 시스템들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시도와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를 판매하고, 구매하고, 관리하는 세 가지 영역을 연결해 줄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면 마스(Mobility as a Service·MaaS) 사업자들과 충분히 경쟁해 볼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이 완성되지 않을까 한다”고 자신했다.

차봇이 그레나디어와 만나게 된 것은 필연적이다. 강 대표는 “온라인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경험을 주려면 상품, 서비스 등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야 한다”고 전했다. 온라인으로 구매했음에도 결국 차량 인도 등 여러 과정은 여전히 대리점에서 해야 하는 패러다임이 바뀌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서비스가 다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 대표는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회사가 절대적 권한을 쥐고 있어서 판매사가 디지털로 혁신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저희같이 기회를 만들려고 해도 상황적으로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모든 것을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사업자의 권한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공식 수입자로서 차량을 중개하고 판매하는 모든 권한을 갖고 디지털 전환의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해보자는 것이



차봇모터스는 영국 자동차 이네오스 오토모티브의 첫 오프로더 ‘그레나디어’의 국내 공식 수입사다. 3월 30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서울모빌리티쇼에 ‘그레나디어’가 전시돼 있다. 뉴시스

미션이었다”고 강조했다.

차봇은 2019년 시리즈 A 투자를 받은 뒤부터 그레나디어 수입을 준비해왔다. 차봇은 그레나디어를 선택하는 고객에게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험과 이후 금융, 보험, 차량 인도, 사후 관리까지 전부 차봇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받을 수 있

도록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다.

보험사에 대한 금액을 비교 추천으로 고객에게 가장 좋은 상품을 안내해주고, 차량 인도할 때 필요한 여러 신차 패키지 등도 다른 사업자와 제휴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차량 관리에 대한 서비스도 앱 자체에서 기록해 필요한 용품,

부품, 정비에 대한 부분을 제공하고, 데이터를 축적해서 나중에 차량을 판매할 때도 더 좋은 금액으로 매도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앱에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강 대표는 “소름이 완성되면 7월부터 사전 예약을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빠르면 올해 11월부터 고객에게 처음으로 인도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판매 가격도 구체화되고 있다. 그는 “, 랜드로버 디펜더보다 경쟁력 있는 금액으로 판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프 랭글러보다 높지만 1억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가격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차봇은 전시장 뒤편에 서비스 센터를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지방에서도 센터를 12개 정도 거점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레나디어뿐 아니라 다른 모든 차도 차봇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추가로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브랜드를 더 들여올 예정이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전사적자원관리’ 비즈니스온 고속성장

1분기 영업이익 50억... 71% 증가
재무솔루션, 캐시카우 자리매김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30%를 웃돌며 고속 성장을 보여준 비즈니스온이 올해도 큰 폭의 성장의 신호탄을 쏘았다. 1분기 실적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더 도약해 연말 깜짝 실적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1일 본지 취재 결과 전사적자원관리(ERP) 기업 비즈니스온의 1분기 실적 상승은 재무관리와 근태관리, 전자서명 등 3개 부문을 중심으로 고른 성장에 의한 것이다.

비즈니스온 관계자는 “지난해 인수한 근태관리솔루션 기업 시프티의 실적 반영과 기존 사업과 전자 서명 부문에서의 성장 등이 주효했다”라며 “특히 시프티의 서비스는 100% SaaS(구독형 솔루션) 형태로 별도 구축비용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온은 1분기 매출액은 150억 원(연결기준·잠정치)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0억 원으

로 70.5% 늘었다. 당기순이익도 155.7% 두 배 이상 뛰어올랐다.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각각 31%, 34.1%, 88.4% 증가한 이후 올해 성장성을 낙관하는 분기 실적을 달성한 셈이다.

비즈니스온은 적극적인 인수합병(M&A)으로 고속 성장하는 기업으로 평가된다. 연결회사의 사업 부문은 재무관리, 인력관리(HR), 전자서명(e싸인), 데이터분석 등이다.

주력사업인 전자세금계산서 등 재무솔루션 부문은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제화와 2011년 가산세 적용, 2014년 개인(일반)사업자 발행 의무화를 거쳐 2015년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행 의무화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캐시카우로 자리매김했다.

2019년 사모펀드(PEF) 운용사 프렉시스 캐피탈에 인수된 이후 적극적인 M&A를 통해 사업 확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글로싸인, 플랜잇파트너스, 넛지파트너스, 시프티를 인수하며 기업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SaaS 솔루션 라인업을 갖췄다.

김우람 기자 hura@

엔지니어 마스터 II 다이버 크로노미터
더 많은 보호 기술을 통합하여 강력한
다이버 워치 공극의 강인함과 극한의
정밀도를 느껴보세요.

www.ballwatch.kr
블워치 부티크 청담 1544-7593

BALL
OFFICIAL 100% STANDARD
Since 1891

〈세포·유전자치료제〉

상용화 땀 ‘잭팟’... CGT 뛰어드는 국내 제약·바이오

올해 글로벌 시장 규모 163억弗 3년간 연평균 성장률 49% 전망
GC셀, 희소혈액암 치료제 개발
중근당, 연구센터 ‘Gen2C’ 설립
SK바사도 지난달 도전 공식화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차세대 약물로 꼽히는 세포·유전자치료제(CGT)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연구개발·제조·생산 난이도가 높아 상용화가 쉽지 않지만, 연평균 50% 성장세로 가능성이 높아서다.

1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의 ‘키페리아(성분명 티사렉렐루셀)’가 지난해 4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

되며, 국내 기업들의 CGT 연구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세포 치료제의 경우 임상 1상에 진입한 파이프라인은 21건, 임상2상 2건, 임상3상 3건으로 나타났다. 유전자치료제는 임상1상 파이프라인이 10건, 임상2상 9건, 임상3상 2건 등으로 집계됐다.

한국바이오협회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 기준 글로벌 CGT 임상은 2220건이 진행 중이다. 지역별로 북미가 43%, 아시아태평양이 38%, 유럽이 18%다. 지난해 254건의 CGT 임상이 추가됐다. 전 세계 CGT 개발기업은 1457개사로 전년 대비 11% 늘었다.

유전자치료제는 대부분 리보핵산(RNA) 기반으로 개발됐고, 대상 질환은 암이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고형암 연구 개발 비중은 63%에 달한다. 세포치료제

는 ‘키메라항원수용체-T(CAR-T)세포 치료제’가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시장 성장 가능성도 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글로벌 CGT 시장 규모가 2023년 163억3000만 달러(약 21조9000억원)에서 2026년 555억9000만 달러(약 74조5000억 원)로 연평균 49.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도 활발하다. GC셀은 지난달 10일 ‘Global Creator of Cell&Gene Therapy’ 비전을 공개하며 글로벌 CGT 기업 도약을 선언했다. 앞서 GC셀은 작년 4월 미국 바이오센터릭 인수로 CGT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에 뛰어든 데 이어 CAR-자연살해(NK)세포를 활용한 희소혈액암 치료제 개발도 진행 중이다.

HLB테라퓨틱스는 올해 3월 미국 자회사 오블라토(Oblato)를 통해 열성유전 질환 중 하나인 고셔병에 대한 유전자치료제 개발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셔병은 몸속의 낡은 세포들을 없애는데 필요한 효소 글루코세레브로시데이즈(GBA)가 유전자 이상으로 결핍돼 생기는 질환이다.

HLB테라퓨틱스는 정상적인 GBA 유전자를 세포에 전달하는 유전자치료제를 통해 1회 투여로 환자가 정상 GBA를 만들도록 유도, 정상인과 같은 생활을 상당 기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근당은 지난해 9월 서울성모병원 음니버스파크에서 유전자치료제 연구센터 ‘Gen2C’를 열고 연구개발을 본격화했다. 미중족 수요가 높은 희귀·난치성 치료제 개발을 담당한다. 장기간 효과와 안전

성이 입증된 아데노부속바이러스(AAV)를 전달체로 활용한 유전자치료제와 자체 플랫폼 기술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도 미래 먹거리로 CGT에 주목하고 있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지난달 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CGT CDMO 사업 도전을 공식화했다.

안 사장은 “CGT CDMO 분야 중 바이러스 벡터(바이러스 전달체)에 먼저 도전하고 CGT CDMO, CGT 신약개발까지 3단계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의 CGT 개발에 대한 활발한 움직임은 확인되지만, 아직 초기 연구 비중이 높은 편인 만큼 인수합병(M&A), 오픈이노베이션 등을 통한 파이프라인 외부 도입 등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체성분 분석 대명사 인바디... ‘체수분 측정=BWA’ 떠오르게 할 것”

인터뷰

민들레 인바디 BWA 팀장

헬스케어 기업 인바디가 체성분 분석이외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 민들레 인바디 BWA 팀장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인바디는 체성분 분석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고, 의료환경 개선 및 환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기기를 선보이고 있다”며 “체성분 분석하면 인바디, 체수분 측정=BWA로 인식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BWA 2.0은 인바디 S10에 이은 2세대 체수분측정기다. 인바디의 기술력을 토대로 체액 모니터링, 세포영양평가, 근감소증 진단, 비만·항노화 평가 등에서 활용

‘인바디 S10’ 뒤이은 2세대 측정기 체액 모니터링·세포영양평가 활용 “지속적 질환 악화 여부 확인 가능 건강지표 체크해 예방적 치료 도움”

된다. 누운 자세에서 양손과 양발에 접촉된 전극을 이용해 몸 속으로 미세전류를 흘려보내면 검사 결과가 나온다. 의료기관에서 기능의학검사 전 사전 스크리닝 형태로 검사를 진행한 후, 환자 체수분 검사 결과지를 토대로 개인 맞춤형 영양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민 팀장은 “최근 BWA를 사용해 면역력의 핵심인 세포영양검사나 체액 균형 및 염증 확인, 비만·노화 평가, 근감소증



민들레 인바디 BWA 팀장이 자사의 체수분측정기 BWA2.0을 소개하고 있다.

을 진단해 각 검사 및 평가, 진단을 기반으로 한 수액·영양제, 기능의학검사 등의 맞춤 처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수분 관리는 일반인은 물론 환자의 경우 질환 악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중요하다. 민 팀장은 “실제 당뇨 환자에게 수분 비율이 높아진다면 신장 기능 이상을 예측할 수 있다. 민 팀장은 “지속적인 체수분 모니터링은 실생활에서의 운동, 식사, 영양소 처방에 도움이 된다. 염증질환, 면역력, 피로와 같은 건강 지표도 확인할 수 있어 예방적 치료를 받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출시된 BWA 2.0은 3MHz 초고주파를 사용해 부위별 세포내외 수분비, 위상각, 근감소증지수, 골무기질량,

체세포량 등과 같은 상세 체성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출시 당시 BWA2.0은 근감소증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했다. 인바디는 해외 시장 진출에도 나선다. 현재 BWA2.0에 대해 유럽과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인허가를 획득했다. 민 팀장은 “미국과 유럽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시작 단계지만, 국내 성과를 기반으로 해외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 팀장은 “BWA는 진단기기, 치료기기로 볼 수 없지만, 기본적인 스크리닝이 가능한 1차 검사 장비 역할을 기대 이상으로 하고 있다. 인바디가 보유한 9000만 개 이상의 데이터를 활용해 연구·개발했다”며 “국민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사진 노상우 기자 nswreal@

‘제약보국’ 앞장선 故이종호... 생명존중·약자와의 동행 실천

JW중외제약 명예회장 별세

1966년 기획실장으로 입사 이후 리지노마이신·피바록신 등 개발 복지재단·장애인 문화활동 도움

“지금 이 순간에 저기(병원)서 꺼져가는 생명이 있는데 싶은 마음이 들면 서 돈이 안 돼서 그만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생명을 다루는 제약기업은 이윤도 중요하지만, 약다운 약을 생산해야 한다”

JW중외제약의 창업정신 ‘생명존중’과 ‘신약개발’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고(故) 이종호 JW그룹 명예회장의 말이다. 지난달 30일 별세한 그는 창업자이자 아버지인 성천 이기석 선생의 창업정신을 이어가며 ‘제약보국(製藥保國)’ 실현에 앞장서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회사가 위기를 겪던 1966년 기획실장으로 입사해 1969년 국내 최초 합성 항생제 ‘리지노마이신’ 개발, 1974년 피바록신 개발 등 회사를 현재의 JW그룹으로 성장



1966년 경영위기를 수습해야 하는 중임을 맡고 취임한 이종호(사진 중앙) 당시 기획실장(왼쪽 사진). JW그룹은 2015년 7월 창립 70주년을 맞아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날 50여 년 동안 회사를 이끌어 온 이종호(오른쪽 세 번째) 회장이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사진제공 JW그룹

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JW그룹에 따르면 1970년대 팔수룩 손해였던 당시 수액제 사업에 대해 이 명예회장은 불이 켜져 있는 병원 불빛을 보며 “돈이 안 돼서 그만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투자를 이어갔고, 1997년 국내 최초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Non-PVC 수액백 개발에 성공했다. 2006년 1600억 원을 투자해 충남 당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액제 공장을 건립했다.

또한 이 명예회장은 국내에 신약개발

개념이 희미했을 당시 “신약개발로 벌어야지, 해외에 있는 약을 수입해서 판매해 이윤을 많이 남긴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신약개발을 강조해왔다. 1983년 중앙연구소를 설립하고 1986년에 신약개발연구조합 초대 이사를 맡아 국내 제약업계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를 만들기도 했다. 이 명예회장의 신약개발에 대한 의지는 현재의 JW그룹과 JW중외제약의 다양한 연구개발(R&D) 파이프라인 보유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특히 그는 “내가 죽기 전 인

류에게 도움이 되는 신약개발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하지만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개발할 수 있는 길이라도 뚫아 놓으면 나는 만족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명예회장은 생명존중과 신약개발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나눔’에도 앞장섰다. 공익법인 중외학술복지재단을 세우고, 성천상을 제정했다. 또 장애인 미술 공모전 JW아트어워드 제정 등 생명존중의 창업자 정신을 몸소 실천해왔다. 노상우 기자 nswreal@

대웅제약 당뇨병 치료제 ‘엔블로정 0.3mg’ 국내 출시

대웅제약은 국산 36호 신약 ‘엔블로정 0.3mg’ (성분명 이나보글리플로진)이 당뇨병 치료제로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아 국내에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엔블로정은 국내 제약사 중 최초로 개발된 SGLT-2(나트륨·포도당 공동수송체-2) 억제제 계열 당뇨병약이다. 적응증은 △단독요법 △메트포르민 병용요법 △메트포르민과 제미글립틴 병용요법 등 총 3개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엔블로정은 기존 SGLT-2 억제제 계열 치료제의 30분의 1 이하에 불과한 0.3mg만으로 동등한 약효를 입증해 우수한 혈당강하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했다. 회사 측은 “국내 제약사 중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했다”며 “국내 당뇨병 시장은 물론 적극적인 글로벌 진출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올해 초 현지 파트너사 M8(Moksh8)과 수출 계약으로 브라질과 멕시코 시장에 진출한다. 계약 규모는 기술료 포함 1082억 원 상당으로, 올해까지 현지 허가 절차를 밟아 내년 하반기 출시할 예정이다. 유희은 기자 euna@

“가상자산법 아직 미흡... 2단계 ‘업권법’ 제정 서둘러야”

법률전문가 3인 제언

가상자산법제화논의가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둔 1단계 법안으로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로 전문학적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불분명한 코인 상장 절차, 가상자산거래소 및 코인 발행사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 의혹, 코인 관련 각종 사기 및 범죄가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감독이나 규제 주체가 누구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이 벌어졌다. 관련법 제정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지난달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및 처벌, 감독 및 검사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시장에서는 이번 가상자산 기본법안에 여러 가지 허점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방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업계를 지원하는 내용은 미비했다는 것이다. 지난 28일 ‘디지털혁신학술포럼’에 참석한 구대인 법

“특금법상 가상자산 정의 그대로 지나치게 넓은 범위, 부작용 우려”

“불공정 단속·투자자 보호에 집중 거래소 등 사업자 지원은 부족”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교육·인력파견 등 지원책도 필요”

무법인 린 변호사,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파트너변호사,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변호사 등 국내 법률 전문가 3인은 ‘성공적인 디지털 자산 규제 발전 방향’을 주제로 이번 주 정무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는 가상자산 기본법에 대한 분석과 함께 향후 법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구 변호사는 우선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는데 보통 그대로 입법 트랙을 밟기 때문에 입법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법안이 곧 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가상자산 사업자 의무

- 고객 예치금 별도 예치나 신탁 등 안전하게 보관
- 이용자 예치한 것과 동일 수량, 동일 종류 가상자산 보유
- 일정 비율 이상 가상자산 인터넷과 분리 보관
- 해킹 등에 대비 보험, 공제에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불공정거래 규제 및 처벌

-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우선 규제
-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자 가상자산 입출금 차단 금지
- 불공정 거래 이익 규모 클 경우 가중처벌
- 부당이득 경우 취득 재산과 시드머니 모두 몰수, 추징 가능

※ 출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에서 가상자산의 정의를 특금법의 가상자산 정의를 그대로 가져온 것을 두고, “출발점에서부터 이 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암호자산(가상자산)은 크게 ‘분산원장’과 ‘암호화’라는 결정적인 필수 구성요소가 있다”면서 “이 정의대로라면 카

카오 선물하기도 개인간 가치를 주고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금법은 지나친 넓은 범위에서 나오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예외들이 있는데, 기본법에는 이게 빠져 있다”면서 “지나친 넓은 가상자산의 정의에서 오는 문제를 정무위 본회의에서 논의되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정 변호사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불공정 거래 적발을 도맡고 있는 가상자산 거

래소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주식시장은 한국거래소, 금융당국, 검찰 등 여러 단계를 거쳐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면서 “이런 업무가 전문성이나 경험이 부족한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효성이 있으려면 사업자들에게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하고, 필요하다면 교육이나 인력 파견 등 상당한 지원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면서 “이런 업무를 위해서 수반되는 노력과 비용에 대해서도 2단계 입법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적인 근거가 법률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새로 도입될 법안도 사실 금융당국 위주로 만들어진 것 같다”면서 “(당국과 정치권은) ‘사업 증진이나 지원은 시급하지 않으니 2단계로 보완하자’라고 했는데, 법안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언제쯤이나 가능할지”라고 말해 2단계 업권법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시은 기자 zion0304@

‘가상자산’으로 명칭 통일? ...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여전히 헷갈려

가상자산법 법안소위 통과로 그동안 국내에서 혼재돼 사용됐던 용어가 ‘가상자산’으로 통일됐다. 하지만 그간 ‘디지털 자산’이란 용어를 사용했던 업비트·운영사·두나무는 디지털 자산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전망이다.

1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장 업계를 규율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화폐, 암호화폐, 암호자산, 디지털 자산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던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통일했다. 가상자산은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다. 한국은행은 ‘암호자산’

을 쓰며, 의원 입법안을 발의했던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등은 ‘디지털 자산’이라는 표현을 썼다.

법안은 특금법과 동일하게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포함)’라고 정의했다. 투자자 보호와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 규제를 골자로 하는 해당 법은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통일했다.

이는 2021년 3월 시행된 개정된 특금법에서 사용한 용어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국내 금융당국이 현재 공식적으

로 사용하는 명칭이다. 법안 역시 특금법의 정의를 그대로 따왔다. 특금법 제2조 3항은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밝혔는데, 가상자산법 대안 역시 이 정의를 그대로 준용했다. 디지털

자산·암호자산·암호화폐·가상화폐 등 그동안 업계에서 각종 용어가 혼용된 만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계류안도 사용한 용어가 제각각이었다. 윤창현·민병덕·민형배 의원안 등은 디지털 자산을, 이용우·양경숙·권은희·김은혜 의원안 등은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CBDC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김한규의원안은 한에서 주로 쓰는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간 업비트는 다른 거래소와 달리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를 고집해왔다.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 고팍스·빗썸

·업비트·코빗·코인원으로 구성된 닥사(DAXA)의 공식 명칭도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다. 2020년 3월부터 해당 용어를 쓴 업비트는 변함없이 디지털 자산이라 부를 전망이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관계자는 “아직 용어 관련으로 특별한 논의는 없었지만, 디지털 자산 용어를 그대로 사용할 것 같다”면서 “법적 용어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를 때가 있고 디지털 자산이 (가상자산 보다) 좀 더 폭 넓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화려한 그래픽·타격감에 ‘입이 짹’ ... ‘글라이더’ 비행 시스템 신선

해보니

위메이드 신작 ‘나이트크로우’



모바일 MMORPG ‘엔리얼5’ 첫 적용 사냥·퀘스트 등 리니지 답습 아쉬워

명타 등이 발생할 때 적용되는 카메라 효과 또한 이러한 타격감을 강화한다.

장현국대표가 주주와의 대화에서 언급한 ‘글라이더’ 시스템도 신선한 재미를 준다. 이용자는 맵 곳곳에 존재하는 공중 비행장에서 글라이더 비행을 진행할 수 있다. 활강뿐만 아니라 상승도 가능해 높은 지형이나 건물 위 등도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 향후 대규모 전투 등에서 지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거나 적진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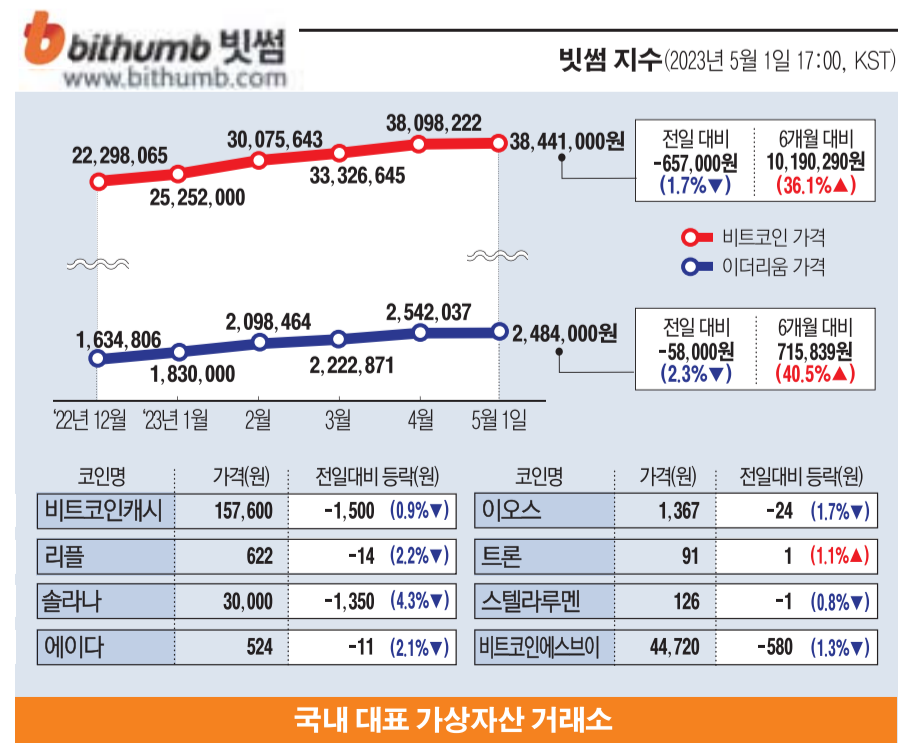
로 침투하는 등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사냥에서는 글라이더를 활용할 일이 거의 없지만, 지역 곳곳에 숨어있는 ‘까마귀’를 찾는 업적 등이 소소한 재미를 제공하기도 한다.

외형적 요소에선 나름의 차별성을 만들어냈지만, 게임의 세부 내용을 보면 나이트크로우 역시 리니지를 필두로 한 국산 MMORPG에서 나타나는 ‘리지나라이크’ 문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아직 모든 스토리를 본 것은 아니지만, 내내 ‘OO과 대화하기’, ‘몬스터 OO 마리 사냥하기’를 반복한다. 피격 판정 역시 선포정이라, 조작을 통해 적의 공격을 피하기 힘들기 때문에 굳이 조작해야 할 필요성도 없었다. 사실상 내 캐릭터가 자동으로 사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보는 게임’의 가까운 모습이다.

BM 역시 기존 리지나라이크와 다르지 않다. 기본적으로 리지나라이크 류 게임은 좋은 보상, 서버에 할당된 이권 등을 위해서 다른 이용자와 경쟁해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게임에서 캐릭터의 능력

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탈것’과 ‘무기 외형’은 확률 뽑기를 통해 획득이 가능한데, 공개된 확률표에 따르면 모든 전설 등급 아이템이 나올 확률을 다 더해야 겨우

0.01%다. 나이트크로우는 출시 이틀만에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인기순위 1위에 올랐다. 게임이 국내 출시 이후 연내 블록체인 버전 출시도 염두하고 있는 만큼, 위메이드의 적자 돌파구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시은 기자 zion0304@



청약시장 봄바람... 새내기 가입자 늘고 경쟁률도 '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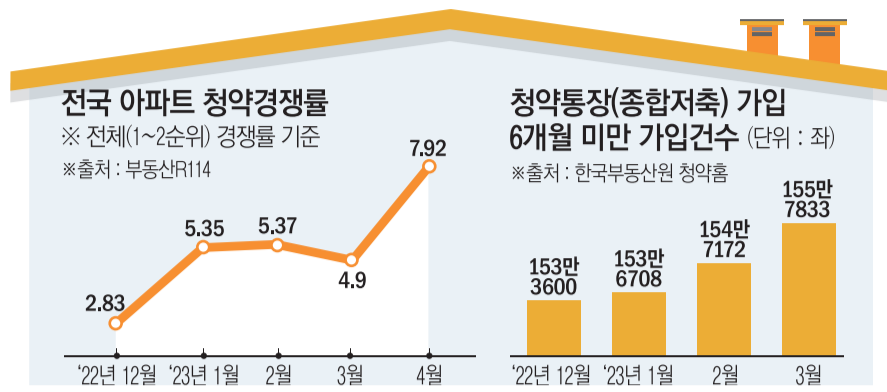
부동산 시장 규제완화 영향

올들어 신규 가입자 2.4만 ↑
청약 경쟁률 8대1까지 치솟아

신규 청약통장 개설자가 올들어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전국 아파트값도 지난달 낙폭을 대거 만회하면서 상승 반전을 꾀하자 지난달 평균 청약 경쟁률도 치솟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약통장 전체 가입자는 소폭 줄고 있지만, 올해 정부의 대규모 부동산 규제완화 영향으로 신규 청약족은 되려 늘어나는 모양새다.

1일 분지 취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연속으로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가 늘었다. 같은 기간 평균 청약 경쟁률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청약통장(종합저축) 가입 6개월 미만' 가입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집계 기준(3월 31일 집계) 전국 155만 7833



좌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서울 30만 9129 좌를 포함해 총 77만 7128좌로 나타났다.

청약통장 가입 6개월 미만 인원은 신규 청약을 위해 통장을 개설한 새내기 청약족으로 볼 수 있다. 해당 규모는 지난해 10월 156만 6715좌(수도권 77만 491좌)를 기록한 뒤 같은 해 11월 156만 1134좌(76만 7429좌), 12월 153만 3600좌(76만 2453좌)까지 줄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청약 경쟁률이 반등하자 신규 가입 규모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1월에는 전국 기준으로 153만 6708좌(76만 2453좌)를 기록해 지난해 12월보다 3108좌(0.2%) 늘었다. 이후 2월 154만 7172좌(76만 8692좌)로 한 달 만에 1만 좌 이상 증가했다. 3월에는 155만 좌를 넘어섰다.

이렇듯 청약통장 신규 개설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정부가 청약 추첨제 물량을 확대하고, 중도금 대출 상환 규제 등을 해제하자 청약을 받기 위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정부 규제 완화로 서울 강남 3구(서초·송파·강남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은 비규제지역이다. 비규제지역에선 전용면적 85㎡형 이하는 추첨 물량 비율이 50%, 전용 85㎡형 초과 평형은 100%다. 규제지역에서도 기존 100%가점제가 아니라 전용 60㎡형 미만은 전체의 60%, 전용 60~85㎡형은 30%를 각각 추첨으로 공급한다.

이런 정부 청약 규제 완화 이후 전국 청약 경쟁률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본지가 부동산R114에 의뢰해 받은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1~28일 기준) 전국 청약 경쟁률(1~2순위 합계)은 평균 7.92대 1로 집계됐다.

전국 경쟁률은 지난해 12월 2.83대 1 수준에 그쳤지만, 1월 5.35대 1로 경증 뛰었다. 이후 2월 5.37대 1, 3월 4.9대 1 등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여기에 지난달 7일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시행되자 평균 7대 1을 넘어선 것

으로 해석된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해 12월 평균 6.52대 1 수준에서 3월 57대 1, 지난달 37.4대 1 등 두 자릿수 경쟁률을 잇따라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가파른 모양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지난 1·3 부동산 대책 이후 전국 대부분 지역이 비규제 지역으로 전환될 것이란 기대감이 컸고, 이를 전후해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가 많이 늘었다"며 "비규제지역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으므로 기존 주택 보유자 가운데 신규 청약을 위해 청약통장을 새로 개설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어 "하지만 청약통장 신규 개설이 늘었다고 해서 곧 청약 경쟁률 상승으로 이어지진 어렵고, 최근 고분양가 단지가 늘어난 상황에서 단지별 분양가에 따라 청약 경쟁률이 크게 차이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금주의 분양캘린더

5월 첫째 주에는 전국 3367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5월 첫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에서

3367가구(일반분양 3035가구)가 분양한다.

경기 용인시 마북동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 경기 안성시 공도읍 '해링턴 플레이스 진사', 충북 청주시 송절동 '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총 4개 단지에서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다. 경기남양주시 다산동 '다산역 자연&푸르지오'(공공임대)는 2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서울강북구 미아동 '엘리프미아역(2단지)'은 3일 당첨자를 가린다.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5/1(월)	계약	경기	파주시	목동동	파주운정디에트르센트럴 (~5/3)	5/3(수)	접수	경기	용인시	마북동	e편한세상용인역플랫폼시티 1순위
5/2(화)	발표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현대프라힐스소사역더프라임 ♣ (~5/3)			충남	서산시	석림동	서산메이시티 2순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인천플랫폼시티 ♣ (~5/8)			경기	화성시	신동	화성동탄로앤하우스(공공지원민간임대) (~5/4)
5/3(수)	접수	충남	서산시	석림동	서산메이시티 1순위	발표	서울	강북구	미아동	엘리프미아역(2단지)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역자연&푸르지오(공공임대)		경기	화성시	봉담읍	봉담중흥S클래스센트럴에듀	
		경기	고양시	장항동	고양장항A4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 (~5/4)	접수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해링턴플레이스다산파크 2순위	
		경기	고양시	장항동	고양장항A5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 (~5/4)		경기	안성시	공도읍	해링턴플레이스진사(1BL) 2순위	
		경기	화성시	신동	동탄파크리츠 (~5/4)		경기	안성시	공도읍	해링턴플레이스진사(2BL) 2순위	
5/3(수)	발표	광주	남구	봉선동	e편한세상봉선셀레스티지 (~5/4)	경기	용인시	마북동	e편한세상용인역플랫폼시티 2순위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해링턴플레이스다산파크 1순위	충북	청주시	송절동	해링턴플레이스테크노폴리스 1순위		
5/3(수)	접수	경기	안성시	공도읍	해링턴플레이스진사(1BL) 1순위	발표	서울	강북구	미아동	엘리프미아역(1단지)	
		경기	안성시	공도읍	해링턴플레이스진사(2BL) 1순위	5/6(토) 계약	광주	광산구	쌍암동	벨루미체청단 (~5/8)	

(주1) ♣=오피스텔 (주2) 1순위 청약접수 단지는 색으로 표시 ※자료: 부동산R114

삼성물산·현대건설, 1.5조 울산 재개발 수주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울산에서 초대형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했다.

삼성현대사업단은 지난달 30일 열린 울산광역시 중구 B-04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울산 중구 B-04 재개발은 울산광역시 중구 교동 190-4번지 일대에서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아파트 48개 동 3885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1조 5420억원이고 지분율은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각각 50%다.

사업 지역은 울산의 전통적인 도심지로 울산경찰청 등 주요 기관과 우정혁신도시가 인접해 주거지로 선호도가 높다. 우정혁신도시는 현재 10개 공공기관이 있고 앞으로 21개 공공기관이 추가로 들어올 계획이다.

단지 내에는 축구장 5배 규모의 대형중앙공원이 들어서고 동별 드롭오프존과 프라이빗 주차공간 등을 통해 다양한 주차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층간소음 저감기술, 스마트홈 서비스 등을 적용해 편안한 주거환경을 선보일 계획이다.

전보규 기자 jbk@

추억의 국민학교 떡볶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진심으로 통하는 맛
추억의 국민학교 떡볶이
전 세계 30개국에서 만나보세요!





IBK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기업은행의 변화는 기업이 중심.

어려운 시기에 기업을 한다는 것

그 마음의 무게를 잘 알기에

기업운영에 더 큰 힘이 되기 위해

기업은행이 작은 것부터 바꿔 나가겠습니다



조건 없이 전체 기업고객
(기업뱅킹 이체 수수료 0원)

'이자 장사' 구태 벗고 'ESG 경영' 새옷 입는 은행들

작년 사회공헌액 1.1조... 6.5% ↑
신한 'ESG 상생 프로젝트' 추진
우리, 협력기업에 0.6% 우대금리
수은, 3인 체제 ESG위원회 구성

'이자 장사'로 비판받은 주요 은행들이 부정적인 이미지 탈피를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막대한 자금을 사회공헌에 쏟아붓는 한편 ESG 프로젝트 및 위원회 구성 등 글로벌 ESG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1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의 사회공헌 지출액은 1조

1305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1조617억 원)보다 6.5% 증가한 규모다.

은행들이 ESG경영에 힘쓰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ESG 실적이 주요 잣대가 됐기 때문이다. 실제 재무적인 성과뿐 아니라 환경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도 기업 평가의 척도가 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은행에 대한 공공성을 강조하며 상생금융 실천을 요구한 점도 ESG경영 강화 요인으로 꼽힌다.

이런 기조에 맞춰 신한은행은 '금융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일류은행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은 'ESG 상생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ESG 각 분야를 포괄해 사업을 추진하는 '상생 지원' 과 ESG

실천 캠페인, 봉사활동, 기부 등 사회적 가치 창출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미래 성장동력인 청년·스타트업 지원 △문화·예술을 통한 ESG경영 실천 △탄소중립 실천문화 전파를 통한 고객 탄소감축 유도 △상생금융 상품·서비스·채널 협업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한 전행 회의기구 운영 등을 추진한다.

우리은행도 ESG경영 확산을 위한 상품을 출시하고, ESG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ESG 경영에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은 3월 31일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금융상품인 '우리 ESG 실천협력기업 상생대출'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우리은행과 협약을 맺은 대기업이 정기예금에 가입해

예금이자로 ESG경영 우수협력기업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ESG경영 실천항목에 따라 협력기업에게 최대 0.6%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한국수출입은행도 지난달 18일 올해 첫 ESG위원회를 열고 ESG 경영 강화에 나섰다. 수은은 허장 사외이사를 ESG위원회 위원장으로, 남해정 사외이사를 위원으로 신규 선임하는 등 윤희성 수은 행장을 비롯해 3인 체제의 ESG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은행장은 "ESG 관련 제도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며 "수은은 친환경 사업 지원 등 정책금융기관으로서 ESG 생태계 활성화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 강화를 위해 관련 공시 활성화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ESG 금융추진단'을 통해 ESG와 관련한 금융분야의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점검하고 있어 향후 은행들의 ESG경영 강화 노력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권이 수익의 일부를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것은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면서 국민과 은행 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며 "ESG 중 'S(사회)'에 부합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라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소액 생계비 대출' 한 달 만에 2만3500명 몰려

취약 계층에 최대 100만원
대출액 143억 3000만원 달해
복지·취업 연계 자립 지원도

급전이 필요한 취약 계층에 최대 100만원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이 출시한 달 만에 143억 원을 넘어섰다.

1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소액 생계비 대출 출시 이후 지난달 26일까지 대출 신청은 2만3532명, 대출금액은 총 143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신용 평점이 하위 20%이고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인 사람에게 50만 원까지 당일 빌려주는 제도다. 병원비나 학자금 등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점이 증명되면 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 15.9%다.

1인 당 평균 대출금액은 61만 원이었다. 50만 원 대출 건은 1만7940건, 주거비, 의료비 등 특정 자금 용도가 증빙돼 50만 원 초과한 대출은 5592건이었다.

이 상품은 높은 금리와 적은 한도임에도 불구하고, 출시 초반부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렸다. 그만큼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이 많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금융위는 소액생계비 대출이 단순 급전을 빌려주는 창구뿐 아니라 복지·

취업 지원 등과 연계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복합 상담이 이뤄진 건수는 총 2만 3474건으로 채무조정(8456건), 복지연계(4677건), 취업 지원(1685건) 등이 함께 지원됐다.

한편 한도를 현재 100만 원에서 2배로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소액생계비 대출이 새로운 제도다 보니까 이 제도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하는지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매년 진단자금 증액... 한화생명 '어른이보험' 한화생명은 암·뇌·심장 진단자금을 100세까지 매년 5%씩 증액하는 '한화생명 평생 친구 어른이보험'을 1일 출시했다. 일반보험과 달리 대부분 '비갱신형'으로 구성됐다. '90일 면책기간'이나 '1년 미만 감액' 등의 조건 없이 즉시 보장이 개시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발생하는 '낙상', '삼킴' 등 응급실 관련 다빈도 생활 질환을 보장하는 특약도 구성 돼 있다. 사진제공 한화생명

개인 4000만원까지... 온투업계 투자 숨통 트이나

기존 3000만원서 한도 늘려
업계 '숙원' 규제완화 첫발
연체율 늘며 건전성 과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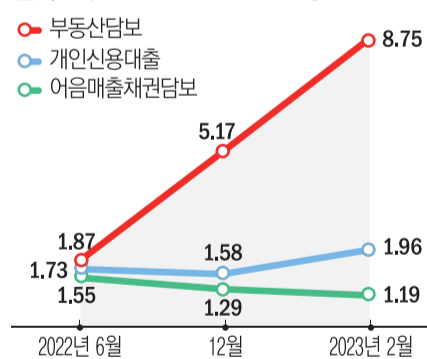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연계 투자 한도가 이달부터 4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온투업권이 그간 금융당국에 요구해 온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향후 온투업계 투자 확대에 이어질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다만, 실질적인 투자 확대에 이어지면 연체율 관리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온투업의 개인 연계 투자 한도를 기존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 늘린 4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온투업 감독규정의 변경을 예고했다.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상품 한도도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 시장 불확실성을 고려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계 대출상품은 기존 1000만 원 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법인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온투업계 주요 상품별 평균 연체율 (단위 : %) ※출처 :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해주고 원금과 이자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금융서비스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년 8월 시행되면서 제도권에 들어왔다.

개인·기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는 온투업권의 '숙원 사업'이었다. 금융업법 간 충돌로 인해 기관투자자의 연계투자가 사실상 막혀 있었고 개인 투자자가 온투업체에 댈 수 있는 돈의 규모도 적었기 때문이었다.

현재 개인·기관투자 관련 규제는 점차 완화되는 중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달 3일,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 기관투자자들이 온투업체에 투자해도 각 업권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

을 내렸다. 온투업계 관계자는 "기관투자 활성화 가이드가 상반기 중에 정리될 수 있도록 온투협회와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소통 중인 상황"이라고 했다.

문제는 온투업계의 자산건전성이 좋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업계 전체 평균 연체율은 올해 2월 기준 7.58%로 지난해 6월 말(3.02%)보다 4.56%p 뛰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영업하던 온투업체의 연체율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온투협회 집계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은 8.75%로, 지난해 6월 말(1.87%)과 비교하면 8개월 새 7%포인트(p) 급등했다.

부동산 경기악화, 온투업권 연체율 상승세가 이어지면 개인 투자 한도가 높아지는 등 규제가 완화돼도 투자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작아진다.

온투업계는 이 점을 인지하고 자산건전성 관리 등 리스크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부동산PF 대출 상품의 경우 신규 상품을 내놓기보다 기존 상품 상황에 집중하는 등 연체율을 방어하는 형태의 운영을 할 것"이라고 했다.

유하영 기자 haha@

GA 불법광고 최대 150만원 부과 보험협회, 금소법 시행 후 첫 제재

손보 내달 심의...생보 7월 실태점검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법인보험대리점(GA) 업무광고 실태점검 후 제재금 부과를 예고했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제재 조치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는 최근 GA업체에 시정조치 요청에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은 건당 20만 원 최고금액 100만 원, 법인은 건당 30만 원 최고 15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달했다. 손보협회는 키워드별 적발건 기준으로 건수 기준을 산정할 예정이다.

이는 금소법 이후 처음으로 제재금을 부과한 조치다. 손보협회는 지난해 말 1차 점검을 진행했지만, 그에 대한 별도 제재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영업 현장서 혼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 3월 GA에 제재 및 제재금 산정기준 개정을 안내하고 지난달부터 적용키로 했다.

보험협회는 금융당국으로부터 GA 검사와 광고심의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업무광고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정한 광고로, 금융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광고를 말한다. 2021년 3월 금소법 시행 이후 자율규제로 운영되다 지난해 11월 부터 본격 시행됐다.

GA의 불법 업무광고 유형으로는 △다른 광고 심의필 무단 이용 △협회 및 보험사 심사 절차 거치지 않은 광고 △광고 심의필 조작 등이 있다.

손보협회는 이달 중순 광고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후 다음달 중순에 시정조치 미 이행건의 광고심의위원회 제재심을 예정하고 있다. 생보협회는 손보협회 심의 조치 이후 7월 초에 2차 실태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추가적인 실태 점검 실시를 통해 일부 GA에서 하는 불법 업무광고 관행들이 개선될 것"이라면 "필요시 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어 불법 업무광고 근절을 통한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당국과 보험협회가 GA 불법 업무광고 유형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홍보하고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

‘반대매매’ 2차폭탄 터질라... 끝나지 않은 SG사태

하한가 종목 신용매수 급증

최근 ‘SG증권발(發) 사태’가 증시를 뒤흔든 가운데 신용비율이 높은 종목에서 2차 매물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반등이 크게 나와 일명 ‘하파(하한가 따라잡기)’로 개인 투자자들이 유입됐고, 일부 종목에선 아직 신용 비율이 높아져서다.

◇6개 종목 증권금융 지분율 5% 넘어... 신용매수 증가 방증 =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G증권 매물 폭탄으로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 중 세방(한국증권금융 지분율 7.27%), 다우데이터(6.38%), 선광(6.03%), 삼천리(6.12%), 다올투자증권(5.05%), 대성홀딩스(5.01%) 등은 한국증권금융이 주주로 올라와 있다. 그만큼 신용 매수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신용매수용 금전을 대여해주는 기관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를 통해 신용매수를 하면 증권사는 직접 대출을 일으키거나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대출을 일으켜 주식을 매입한다. 이후 한국증권금융은 원금 확보를 위해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 매수한 주식을 담보로 잡는다. 즉 투자자들이 신용 매수한 주식이 한국증권금융의 담보 지분으로 잡히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선광과 대성홀딩스를 마

세방·다우데이터·삼천리 등

한국증권금융, 5% 지분 공시

신용매수 대여기관 ‘빚투 주의’

주가폭락 직전 주식 처분 포착

당국, 공매도·대주주 연루 조사

지막으로 역대급 하한가 행진이 마무리되면서, 신용비율이 가장 높았던 세방(12.71%·지난달 25일 기준), 다우데이터(11.20%) 등은 각각 1.26%, 0.98%로 확 줄었다.

다만, 아직도 신용비율 5%가 넘는 종목이 4종목이나 남아 있다. 가장 높은 신용비율을 가진 종목은 한국증권금융이 6.03%의 지분을 보유 중인 선광으로 10.55%를 기록 중이다. 4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거치면서도 12.57%(지난달 24일 기준)에서 2.02%밖에 빠지지 않았다.

이밖에도 △삼천리(8.76%) △서울가스(6.75%) △대성홀딩스(5.87%) 등도 주가가 크게 떨어졌지만 아직 신용 비율이 높은 편이다. 2차 매물폭탄을 주의해야 할 이유다.

하파를 위해 뛰어드는 개인투자자도 크게 늘고 있다. 삼천리의 경우 지난달 28일 전 거래일 대비 2.81% 오른 12만8000원에 장을 시작해 장중 상한가인 16만1800

SG증권발 하한가 종목의 한국증권금융 지분율·신용비율 (단위 : %)

구분	한국증권금융 지분율	신용비율
세방	7.27	1.26
다우데이터	6.38	0.98
삼천리	6.12	8.76
선광	6.03	10.55
다올투자증권	5.05	1.55
대성홀딩스	5.01	5.87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한국거래소



원(29.96%)까지 오르다 15만3000원(22.89%)에 장을 마쳤다. 한 주간 개인 투자자가 사들인 금액만 771억 원에 달했다. 대성홀딩스의 경우 하루 변동폭이 55%가 넘었다. 이렇다 보니 ‘하파’ 투자자들의 좋은 먹잇감이 됐던 것이다. 다우데이터(597억 원), 서울가스(307억 원), 세방(274억 원), 선광(240억 원) 등 다른 종목들도 모두 개인이 순매수했다.

전문가들은 아직 신용비율이 남아있는 종목이 있는 만큼 ‘하파’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반등이 일시적일 수 있고, 재차 하락한다면 매도 물량에 또 한번 큰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다”고 조언했다.

◇불거지는 대주주 책임론 =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 공매도 세력 연루 가능성, 대주주 사전 인지 여부 등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수사·조사 인력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 금융당국은 주가 폭락 전 일부 종목들의 공매도가 급증한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선광은 평소 10주 미만이었던 공매도 물량이 폭락 직전 지난달 19일 4만 주 이상 나오는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

하한가를 기록한 8개 종목 대주주들의 주식 처분 과정도 조사 대상이다.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폭락 사태 직전 시간외매매로 다우데이터 보유 주식 140만 주(3.65%)를 주당 4만3245원에 처분해 605억 원을 챙겼다. 황성현 키움증권 사장은 지난달 금감원 주최 간담회에서 불법 일일 매매로 이번 사태 종목들의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 업체 라덕연 대표와 “전혀 일면식도 없다”고 말했다.

김영민 서울가스 회장도 지난달 17일

시간외매매로 10만 주를 주당 45만6950원에 처분해 456억9500만 원을 확보했다. 이종명 전 아나티 회장은 주가조작 세력에 연루돼 자신도 피해를 보고 다른 투자자도 끌어들이는 의혹을 받고 있다.

◇증권사들의 경고 무용지물 = 이번 사태와 관련 앞서 증권 전문가들의 경고도 있었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난해 5월 삼천리에 대해 주가가 ‘오버슈팅’ 상태라며 투자 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췄다. 이어 11월에는 ‘비중 축소’로 투자 의견을 또 다시 낮췄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가스 배관을 활용한 수소 사업 기대감으로 가스 업체들의 가치평가가 개선됐다”면서 “삼천리는 가스전을 보유하지 않은 가스 유통업체로, 실적과 주가 모두 과거로 회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SK증권도 지난해 말 보고서에서 “수소 사업이 삼천리의 주가를 리레이팅(재평가) 시킬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나증권도 “현재 주가 강세는 다소 테마적 성격이 강하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가스에 대해서도 지난해 말 SK증권은 “현재 주가는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함께 실적이 상승할 것이라 기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도시가스 사업 영업이익률과 천연가스 가격은 무관하다”고 평가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

CFD 주가조작 의혹... 16년 전 루보사건과 닮은꼴

다단계영업을 시세조종조달 접목
루보 주가 10개월만에 57배 올라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한 주가 조작 의혹 사태로 검찰과 금융당국이 수사·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16년 전 자본시장을 뒤흔들었던 루보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사건은 당시 새로운 수법으로 사기 사건을 일으켰던 사례다. 금융감독원은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지난 2018년에 발간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사’에 고스란히 기록했다.

이번 주가 조작 사태와 유사한 방식으로 꼽히는 사건이 바로 루보사태다. 루보사태는 지난 2007년에 벌어졌다. 금

감원은 “다단계회사의 영업 방식을 최초로 시세조종 자금 조달 방식에 접목시킨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피해규모가 커 큰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이었다.

당초 루보는 자동차용 배어링을 만들던 회사였다. 자본금은 50억 원 수준인 소형주였다. 지난 2006년 6월 9일 기준으로 루보의 주가는 900원에 불과했다. 이후 2007년 들어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2007년 4월 20일에는 5만1400원까지 올랐다. 1년도 채 안 되는 시기에 주가가 무려 57배 상승한 것이다.

사건의 주범은 시세조종 1세대로 분



사진제공 금융감독원

류되는 김영모였다. 금감원은 당시 수법을 “1차로 모집한 자금으로 루보 주식을 1000원에 매수한 뒤 2차 모집자금으로 2000원에 매수해 1차 매수자에게 100% 수익을 실현시켜 주는 방식”이라

며 “다시 3차 모집자금으로 4000원에 매수해 2차 매수자에게도 100% 수익을 실현시켜 줌으로써 기존 투자자들이 더 많은 자금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방식으로 모집한 투자자 규모만 3000여 명, 시세조종 자금은 약 1100억 원에 이르렀다.

금감원은 국내 증권사의 감사실로부터 제보를 받아 루보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의 긴급조치로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 수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주가조작 행위를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은 증권사에 대해서 일

부영업점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가 내려졌다”며 “금감위는 증권감사국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루보 사건과 관련하여 주가조작 세력임을 알고 난 이후에도 영업실적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이를 방관하거나 사이버를 제공 등 편의를 봐준 SK증권 등에 대해 일부 지점 영업정지 및 관련 직원 면직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내 증권사가 주가조작에 관련 해 지점 영업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것은 2002년 텔타정보통신 주가조작 사건 이후 처음이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쏟아지는 은행채, 기업 돈맥경화 부르나

올들어 46兆... 2분기 만기 63兆 차환 발행에 시장자금 흡수할수도

우량채에 속하는 은행채 발행이 급증하고 있다. 당장 만기를 코앞에 둔 은행채도 늘어나면서 비우량채인 일반 기업들의 ‘돈맥경화’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 우려도 나오고 있다.

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채는 올해 4월까지 총 46조3600억 원 발행됐다. 지난해(45조7800억 원)보다 52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은행채는 1월(9조9100억 원) 이후 매달 10조가 넘는 발행액이 이어졌다. 2월(12조1100억 원), 3월(10조600억 원), 4월(12조7800억 원) 등 4월은 올해 중 가장 높은 월별 발행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는 은행채의 발행 한도가 올라간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은행채 발행 한도를 만기 물량의 100% 이내로 제한했는데, 지난달부터 125%로 확대해줬다.

만기 도래 예정인 은행채 규모도 상당하다. 2분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채는 62조8611원에 달한다. 1분기(48조7008억 원)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만기가 커졌다는 것은 차환 물량이 쏟아져 앞으로 발행량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통상 만기 도래 후에는 차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채는 신용등급이 AAA급인 초우량채로, 차환 시 투자 수요가 쏠릴 공산이 크다. 이 경우 은행채가 채권 시장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다른 일반 회

사채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미 비우량채는 앞서 한국전력 등 우량채가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투자심리가 얼어붙는 분위기다. 건설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가 지속하면서 미매각이 속출하고 있다. 앞서 KCC건설(A-)의 경우 900억 원 규모의 건설채를 발행했는데, 770억 원이 미매각됐다.

신한투자증권 투자전략부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 제한되었던 은행채 발행 한도도 완화돼 초우량물 발행이 단기간 집중될 경우 금리(스프레드) 상승이 예상된다”며 “시장 전반의 금리 레벨이 상승한 후, 차상위 등급으로 수요가 단계적으로 이동함에 따라 하위등급 회사채 수요가 구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손민지 기자 handmin@

포스코그룹株, 한주 새 시총 6兆 증발

이차전지 투자 열풍을 타고 끝없이 오르던 포스코그룹주에 제동이 걸렸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매도 공세 여파로 공포심리가 확산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차전지를 비롯한 테마주 과열 우려를 지적하면서 증시 랠리를 이끌었던 이차전지 관련주들이 무더기 하락한 영향이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2차전지 K-뉴딜지수’는 지난 일주일간(21~28일) -8.54% 하락하며 같은 기간 코스피 하락 폭(-2.40%)을 크게 밀었다. 해당 지수는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SDI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등 이차전지 대표 종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차전지 수혜를 톡톡히 봤던 포스코그룹주의 낙폭이 컸다. 이 기간

포스코퓨처엠은 -17.89%, 포스코엔텍과 포스코DX는 각각 -23.29%, -21.14% 떨어졌다. 포스코그룹주 시총액은 일주일새 72조 원 수준에서 66조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차전지 주가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테슬라가 1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SG증권발 매도 공세 여파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최근 신용잔고와 대차잔고가 급증한 포스코그룹주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이 이차전지 테마주 등에 대한 과열 경고를 내놓은 것도 불을 붙였다.

수급도 불안하다. 이달 들어 외국인인 POSCO홀딩스를 2조6580억 원어치 팔아치웠다. 같은 기간 코스피 전체 순매수액인 1조3927억 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김예슬 기자 viajeporlu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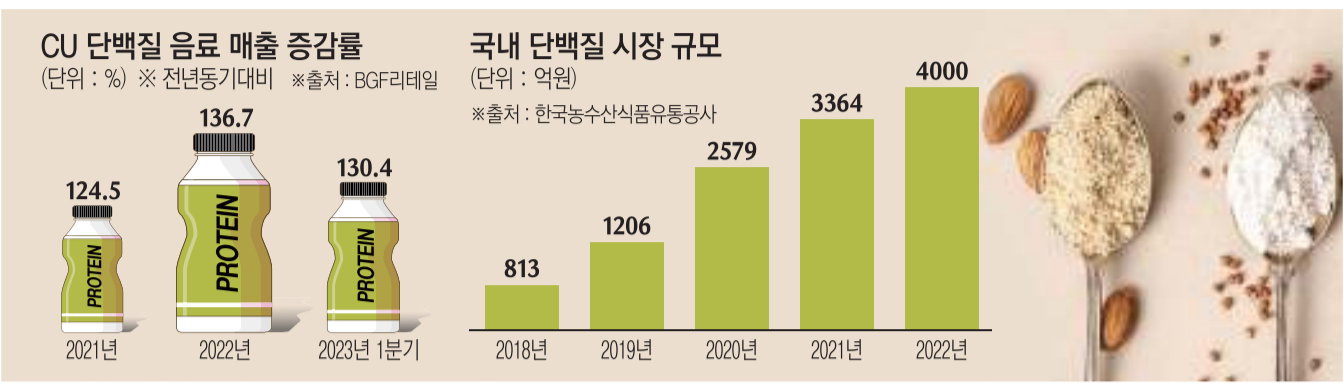
파우더부터 과자까지... 단백질, 어디까지 먹어봤니?

웰니스(Wellnes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단백질 식품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단백질 식품은 통상 운동선수들의 보조식 개념으로 주로 파우더 형태였다. 최근 일상생활에서 섭취하기 간편한 마시는 형태로 진화해더니 프로틴바와 과자, 소시지·초콜릿까지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단백질 보충제 시장 규모는 2018년 813억 원에서 2020년 2579억 원, 지난해 4000억 원을 기록하며 급성장했다.

BGF리테일은 편의점 CU(씨유)의 2021년 단백질 음료 매출이 전년 대비 124.5% 늘었고, 지난해엔 136.7% 더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에도 관련 매출이 130.4% 상승했다. CU에서 판매하는 단백질 음료 품목도 2021년 20여 종에서 올해 60여 종으로 늘었다. 편의점 주요 소비층인 10~30대의 젊은 세대가 단백질 음료를 찾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식음료 업계는 앞다투어 단백질 드링크 전문 브랜드와 제품을 선보였고, 마케팅을 강화하며 고객 잡기에 나섰다. 대표적인 회사는 빙그레다. 이 회사는 2021년 5월 초코와 캐러멜, 커피 등 3종의 '더:단



10~30대 건강관리 관심 커지며 2018년 813억 → 작년 4000억 시장규모 4년만에 5배 가까이 쏙 1분기 CU 음료매출 130% 상승

백' 드링크를 출시하며 단백질 시장에 뛰어들었다. 현재 프로틴바와 파우더, 스낵 등으로 라인업을 넓혔지만 주력은 드링크다. 출시 2년 만에 '더:단백'의 누적판매량은 3000만 개를 돌파했다.

대상웰라이프는 2019년 출시한 단백질 브랜드 '마이밀' 모델로 지난해부터 2PM의 준호를 선정해 공을 들이고 있다. 대표 상품은 뉴프로틴과 프로틴리저브 등

음료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7월 '데이크핏 맥스'로 단백질 음료 시장에 참전했다. 삼양식품도 올해 3월 '잭앤필스'를 론칭하고 첫 번째 제품으로 단백질 음료 '프로틴드롭'을 출시했다. 같은달 웅진식품도 견기식 브랜드 '솔브앤고'를 선보이며 단백질 음료 2종을 내놨다.

국내 단백질 식품 열풍 선봉장은 매일유업과 일동후디스로 평가된다. 양사는 파우더를 주력으로 해 중장년층을 공략했다. 2018년 셀렉스로 시장에 진출한 매일유업은 관련 매출이 2019년 250억 원을 기록한 후 2021년 900억 원으로 크게 뛰었다. 이에 2021년 셀렉스 담당 헬스앤뉴트리션 판매사업부문을 분할해 독립시키

매일유업·일동후디스, 파우더로 중장년층 웰니스 시장 적극 공략 CJ제일제당·오리온 등 식품업계 프로틴바·소시지로 접근성 UP

고 파우더와 드링크제까지 제품을 확대했다. 골프어제 박세리와 가수 정동원을 내세워 대중화를 이끌었다.

일동후디스는 2020년 2월 '하이문 프로틴 밸런스'로 단백질 시장에 뛰어 들었다. 가수 장민호를 모델로 중장년층이 주된 시청자인 흡소핑을 공략했다. 출시 첫 해 매출 300억 원에 이어 2021년 매출 1050억 원을 달성하며 '셀렉스'를 넘어

단숨에 1위에 올랐다. 지난해 매출 1650억 원을 돌파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사실 중장년층 시장은 일동후디스와 매일유업이 파우더 제품으로 꽂 잡고 있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후발업체들은 젊은층 공략을 위해 음료 사업에 눈을 돌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백질 식품이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친숙해지며 과자와 초콜릿 등으로 영역이 확대됐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단백질 함유량을 높은 '맥스봉 프로틴'을 출시했고, 동원F&B는 산양유 단백질 분말을 함유한 고단백 '산양 프로틴 슬라이스 치즈'를 내놨다.

오리온은 '닥터유'에서 파생된 고품질 단백질 브랜드 '닥터유프로(PRO)'를 지난해 6월 선보였고, 음료와 바 형태로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단백질 함유량을 높은 제품도 있다. 샘표는 단백질 함유를 높인 '밸런스죽'을, 농심켈로그는 '프로틴 바K 카라멜&넛'을 최근 선보였다.

과자업계 관계자는 "파우더 등 전문적인 제품보다는 일반 소비자도 부담 없이 즐기도록 기존 제품에 단백질 함유량을 높이는 방식으로 신제품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꽃 케이크로 전하는 '가족 사랑' 현대그린푸드는 8일까지 현대백화점, 현대아울렛 등 전국 16개점 베를리 매장에서 가정의 달 맞이 '스페셜 케이크'를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케네이션 장식물과 감사 문구 토퍼를 생크림 케이크에 얹은 케네이션 케 사신제품 현대그린푸드

한화갤러리아, 파이브가이즈 운영 자회사 설립

에프지코리아 지분 100% 보유 6월께 강남에 1호점 오픈 예정

한화갤러리아가 파이브가이즈 국내 운영을 담당하는 자회사에프지코리아(FG Korea)를 설립한다.

1일 한화갤러리아에 따르면 에프지코리아의 지분 100%를 보유한다. 자회사 설립은 올해 6월 파이브가이즈 국내 운영을 본격화하기 위한 것이다. 파이브가이즈는 해외 사업을 전개할 때 해당 국가에 운영 전문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파이브가이즈'는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아시아 등 23개 국가에서 1800여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한국은 홍콩,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 마카오에 이어 아시아 6번째 진출 지역이 됐다. 국내 1호 점포는 신논현역과 강남역 사이 강남대로에 들어선다. 규모는 전용면적 618㎡(184평) 2개층이고, 좌석은 150여개 정도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처음 론칭

하는 브랜드로 되도록 많은 고객들이 제품을 맛볼 수 있도록 하루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강남역 일대를 택했다"고 했다.

한화갤러리아 측은 파이브가이즈 브랜드 유치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김동선 본부장을 중심으로 조리법부터 서비스까지 '오리지널리티'를 최대한 살린다는 방침이다. 갤러리아는 6월 1호점을 시작으로 5년간 국내에 15개 이상의 매장을 열 계획이다.

한편, 에프지코리아의 대표이사는 기존 파이브가이즈 브랜드 준비 팀을 이끌었던 오민우 팀장이 맡는다. 오 신임 대표는 서울대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글로벌 외식 브랜드를 거쳐 2021년 한화에 입사했다. 유승호 기자 peter@

하이트진로 새로운 맥주 켈리 '1억병 판매' 최단 기록 재도전

"테라 100일보다 앞당길 것" 듀얼 브랜드로 1위 탈환 목표 서울 5대 상권에 영업력 집중

최근 맥주 신제품 '켈리(사진)'를 선보인 하이트진로가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영업력을 강화한다. 최단 기간 1억 병 판매를 통한 시장 안착이 목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초 선보인 올 몰트 프리미엄 라거 맥주 '켈리'의 영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켈리는 덴마크에서 북대서양의 해풍을 맞으며 자란 프리미엄 맥아만을 100% 사용하고 두 번의 숙성 과정을 거쳤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일반 맥아보다 24시간 더 발아시키는 '슬로우 발아'로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다. 또 7°C에서 1차 숙성한 뒤, -1.5°C에서 한번 더 숙성시켜 강한 탄산감을 더한 '더블 숙성 공법'으로 두 가지 숙성의 맛이 공존하는 주질을 구현했다.

하이트진로는 출시 초반 시장 안착을 위해 영업력으로 승부를 걸 방침이다. 2019년 '테라' 출시 당시 3개월 내 승부라는 전략으로 주요 상권 중심의 영업을 펼쳐 100일 만에 1억 병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켈리 출시 일을 지난해 초로 잡은 것도 맥주 판매가 증가하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시장에 안

착하기 위함"이라며 "현재 서울 5대 상권을 중심으로 영업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 테라와 신제품 켈리의 듀얼 브랜드로 오비맥주 카스에 빼앗긴 맥주 시장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이 목표다.

하이트진로는 듀얼 브랜드 전략에 상당한 기대감을 보인다. 앞서 소주 '참이슬'과 '진로'의 듀얼 브랜드 전략이 성과를 거뒀다. 하이트진로는 2019년 원조 소주 진로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뉴트로 소주 '진로'를 출시, 기존 참이슬과 진로의 시너지를 통해 소주 시장 점유율을 6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맥주 시장 탈환과 관련 유통시장 외 가정시장 점유율 확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오비맥주 카스는 올해 1분기 가정시장 점유율이 43%로 2019년 1분기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전년 동기 와 비교하면 2.3%포인트 늘었다.

다만 하이트진로가 켈리 영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마케팅이 집중되는 2분기까지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인 전망도 나온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1분기 영업이익은 339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밑돌 것"이라며 "2분기 영업 이익도 켈리 출시에 따른 마케팅 비용 집행으로 1분기 대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돈봉투’ 고강도 수사에… 이정근 “검찰, 법 어겨” 고소

검찰 vs 민주 ‘강대강 대결’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이정근(사진)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 검찰이 사건의 주요 증거물인 ‘녹음파일’을 외부에 유출했다며 수사팀 검사 등을 고소한 것이다. 반면 검찰은 수사 종착지인 송영길 전 대표를 사건 ‘공범’으로 적시하며 관계자들에 대해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을 대리하는 정철승 법무법인더법 변호사는 1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성명 불상 검사와 JTBC 기자, 보도국장 등 13명을 상대로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개인정보법위반으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JTBC는 지난달 12일부터 이 전 부총장과 사건 관계자들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방송에 공개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檢, 녹취록 외부 유출 등 위법”

李, 검사·기자 등 13명 고소

李 변호인 “포괄적 압색은 불법”

檢, 송영길 공범 적시 수사 속도 캠프 등 압색… 宋 오늘 자진출두

일각에서는 이 전 부총장이 검찰과 플리바기닝, 즉 사법거래를 하고 조사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녹취록을 의도적으로 외부에 유출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이 전 부총장은 자신 관련 수사에서 검찰과 플리바기닝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검찰이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전화통화 녹취 파일은 3만 건에 이



다. 1건의 통화가 3분이 라고 가정했을 때 3만 건의 통화는 62일에 달하는 양인데 이 방대한 내용을 언론사가 입수해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정 변호사는 주장했다. 오히려 검찰이 녹취록을 외부로 유출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의심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12일 검찰이 이상만·윤관석 민주당 의원을 압수수색을 하며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같은 날 JTBC는 녹취록을 보도했다”며 “JTBC가 3만 건의 녹취파일을 미리 입수해서 분류작업을 다 해놓고 기다리다가 검찰 수사 시작에 맞춰 방송에 공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른 변호사들이 유출했을 가능성”에 대해 정 변호사는 “이 전 부총장의 녹음파일은 그간 많은 변호사들의 손을 거쳐 왔

고 그를 도운 주변인들도 녹취록을 갖고 있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한 방법으로 방송사에 유출됐다고 할지라도 그 방대한 양에서 그 녹취록만 찾아내서 방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번 돈 봉투 사건은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 녹취파일에서 시작됐다. 이 전 부총장이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금품(알선 수재 혐의)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당시 압수된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에서 ‘봉투 전달’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수사팀은 이를 단초로 수사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정 변호사는 “사건과 관련된 정보만 압수하겠다고 압수수색 영장에 제한해둬야 하는데 이처럼 포괄적 압수수색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의 공세에도 검찰은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송전 대표의 경선 캠프 지역 본부장 등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팀은 이를 전에도 송전 대표의 주거지와 그가 설립한 ‘먹고사는문제연구소’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당 연구소는 송전 대표의 외곽조직으로 돈 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이 전 부총장 등이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의 피의자를 최소 10명으로 보고 있으며, 송전 대표는 ‘공범’으로 적시됐다.

검찰의 압박 수위가 거세지자 송전 대표 측은 자진 출두 의사를 밝혔다. 송전 대표 측 변호인 선종문 변호사는 송전 대표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다만, 이날 검찰 수사는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수사팀 일정상 송전 대표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수진 기자 abc123@

軍 야유회 뒤 12m 옥상에서 실족사 法 “국가유공자도 보훈 대상도 아냐”

유족, 국가보훈처 상대 소송

“직무수행 무관”…2심 뒤집어

군대에서 야유회를 갔다가 실족사한 경우 ‘재해 사망 준경’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유공자는 물론 보훈보상대상자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육군 단기복무 부사관 A 씨의 유족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하사로 임관해 복무하던 중 2003년 7월 17일 소속 부대 중사들과 함께 야유회를 갔다 독신자 간 부속소로 귀가했다.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께 속소 출입문 열쇠가 없어 높이 12m의 옥상에서 4층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 가려다가 바닥에 추락했다.

A 씨는 그 다음날인 2003년 7월 18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병원으로 후송돼 2주일가량 두개골 기저부 골절, 요추의 다발성 골절, 다발성 찰과상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약 8시간에 걸친 수술을 마치고 전신마취에서 각성시키는 회복 과정에서 심장박동이 돌아오지 않아 사망했다.

A 씨의 모친은 2020년 6월 25일 국가

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처는 같은 해 11월 11일 국가유공자 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록 거부 처분을 내렸다

재판에서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법령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하지는 않다는 판단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사망이 국가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보훈보상 대상자에는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직무수행의 범위 및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만약 이 사건 추락 사고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 발생했고 그 치료나 수술과정에서 망인이 사망한 것이라면, 추락사고와 치료나 수술행위를 일체로 보아 직무수행과 관련성을 인정해서 ‘재해 사망 준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추락사고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노조탄압 중단하라” 노동절인 1일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단체들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열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5·1 총궐기 세계 노동절 대회’ 모습. 이곳에서만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가자, 총파업’ 등의 손팻말을 들고 노조탄압 중단과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한부모가정 ‘가사서비스’ 대상 늘리고 전액 무료로

서울시, 약자가족 지원 강화

서울시가 ‘가정의 달’을 맞아 한부모 가정, 미혼모·부, 청소년부모 등 36만 약자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1일 서울시는 가족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정책을 펼치며 올해 기준예산 1127억 원에 더해 향후 4년간 총 336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정에 올해 하반기부터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중위소득 150% 이하(기존 120%)로 확대하고,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자녀 교통비 및 교육비’도 중위소득 60% 이하(기존 52% 이하)로 대상자를 확대해 한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준다. 한부모가족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시에 거주하는 약 4300명의 미혼모·부와 자녀를 위한 양육지원이 강화된다. 기존 중위소득 72% 이하의 미혼모·부가정에 지원하던 병원비 및 양육 용품은 연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약 541가구의 청소년부모에 대해서도 지원에 나선다. 우선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에서 150% 이하까지 대폭 확대하고,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청소년부모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20만 원에 더해 총 40만 원을 받게 되고, 중위소득 60~150% 청소년부모는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새롭게 받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편견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여러 분야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펼치겠다”며 “약자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늘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하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채빈 기자 chaebi@

급식에 ‘개구리 반찬’… 법원 “급식업체 영업정지 정당”

급식업체 “영양사가 조리 지시”

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 일부가 나와 급식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박지숙 판사는 학교 급식소를 운영하는 A사가 서울 노원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사는 서울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와 2022년 3월부터 1년간 위탁급식업체 계약을 맺고 급식소를 운영했다. 그러던 중 그해 7월 이 학교 학생이 받아 간 나물무침 반찬에서 약 1cm의 개구리 사체 일부가 발견돼 같은 해 11월 노

원구청으로부터 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사는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계약상 업무범위는 조리, 배식, 청소 등에 한정되며 식재료 선정과 검수는 학교 소속 영양교사의 소관”이라며 주된 책임이 학교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사는 사건 당일 해당 학교 소속 영양교사가 식재료 검수과정에서 개구리 사체를 발견했지만 조리를 지시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물질이 발견된 당시 영양교사의 지시로 조리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조리 참여하는 A사 직원들이 조리 시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수진 기자 abc123@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알고보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세상

세상의 모든 연결이
더 행복해지도록

모두를
잇다.



[하나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두를 잇다-연결편' 광고를
지금 확인해보세요



하나증권

하나증권 모델
강 태 오

CC브랜드221025-0164

방미 동행 최태원 회장 ‘그린 리더십’ 빛났다

‘수소에너지’ 플러그파워·폐플라스틱 재활용 PCT 등 SK 지분 투자·합작법인 통해 국내 투자 성과 이끌어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서 첨단기술 동맹 강화 논의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해 양국의 첨단 산업 협력 강화에 적극 나섰다. 1일 SK그룹에 따르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투자신고식에는 SK가 글로벌 투자 및 협력을 통해 이끌어낸 미국 기업의 국내 투자 건들이 포함됐다.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뤄진 투자신고 중 글로벌 수소에너지 선도기업인 플러그파워의 국내 투자는 SK와 오랜 기간 이어온 협력하에 이뤄진 성과였다. 앞서 SK(주), SK E&S는 2021년 플러그파워에 16억 달러(약 1조8000억 원)를 투자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SK E&S는 플러그파워와 합작법인(JV)을 설립해 아시아 시장에서 수소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중이다. SK E&S와 플러그파워는 합작법인 ‘SK 플러그 하이버스’를 통해 국내 수소 산업에 총 1조 원을 투입한다. ‘SK 플러그 하이버스’는 수소기술 R&D 센터 및 수소 핵심설비 생산기지인 ‘기가팩토리’를 만들고 수소 연료전지와 전해조 설비의 대량 생산체계를 갖춘다. 국내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 및 운영에도 투자할 계획

이다. 플라스틱재활용 기업 퓨어사이클테크 놀로지(PCT)는 SK지오센트릭과 설립한 합작법인을 통해 국내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설에 투자하기로 했다. PCT는 폐플라스틱에서 오염물질, 냄새, 색을 제거한 초고순도 재생 폴리프로필렌을 뽑아내는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SK지오센트릭이 지난해 3월 PCT에 5500만 달러(약 680억원)를 투자해 지분을 확보했다. 양사 합작법인은 재활용 플라스틱 생산공장 연내 착공을 목표로 협업 중이며 2025년까지 세계 최초 플라스틱 재활용 단자인 ‘울산 ARC’를 조성한다. SK 관계자는 “이번 투자신고는 SK가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글로벌 선도 기업과 긴밀하게 협업해온 것이 결실을 맺어 국내 투자 유치 및 한미 경제외교까지 기여한 것”이라며 “최 회장이 경영화대로 제시한 ‘글로벌 스토리’의 좋은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30여 명의 양국 주요 기업인들과 첨단기술동맹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논의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싱크탱크 간담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한미 경제협력 확대, 공급망 전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SK그룹

최 회장은 “기술이 곧 안보인 시대에는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구성이 중요하다”며 미시간주에서 추진 중인 차세대 전력반도체용 웨이퍼 공장 건설 투자 등을 소개했다. 최 회장은 테라파워와 함께 2030년까지 SMR(소형모듈원자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례도 언급하며 “양국 기업이 기술협력을 통해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며 경제안보 파트너십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번 워싱턴 D.C. 방문을 계기로 미국 싱크탱크 관계자들과 만나 한미 경제협력 확대, 공급망 전망 등에 대해

서도 논의했다. 최 회장은 “지정학적 경쟁,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 등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양한 전문가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최 회장의 방미 기간에 맞춰 SK(주), SK이노베이션, SK E&S, SK머티리얼즈 등 그룹 계열사들은 SMR, 블루수소(화석연료를 이용해 생산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로 제거한 수소) 등 에너지 분야와 관련한 여러 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글로벌 협력 통로 확장에 주력했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풀무원건강생활 오경림 대표 선임
일본인 아사히코 대표엔 이케다 미오



풀무원은 계열사인 풀무원건강생활 신임 대표에 오경림(왼쪽 사진) 씨를, 풀무원일본법인인 아사히코(Asahico) 신임 대표에 이케다 미오(오른쪽) 씨를 각각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풀무원건강생활 오경림 신임대표는 경희대학교 식품영양학 학사와 동 대학 영양생화학 석사 출신으로 아모레퍼시픽, CJ제일제당 건강기능식품 마케팅 부서장, 에프앤디넷 마케팅 본부장(연구소장 겸임), 롯데칠성 E커머스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20여 년간 마케팅 전문가로 활동했다. 풀무원일본법인 아사히코의 이케다 미오 신임 대표는 도쿄농업대학 농학부 임학과 출신으로 일본 및 유럽, 미국의 식품 기업에서 마케팅, 영업 전문가로 활동했다. 지난 2018년 풀무원 일본법인에 합류, 일본법인의 PF(Plant Forward) 사업부장, 영업 마케팅 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전통적인 두부 및 유부와 더불어 식물성 지방 신제품 ‘두부바’와 ‘두부 크림’을 성공적으로 론칭하고, ‘키자미 유부’ 등 글로벌 신상품 개발을 통해 일본법인의 마케팅을 주도해 왔다. 남주현 기자 jooh@

제주항공, 열린의사회와 필리핀서 의료봉사 활동



제주항공은 열린의사회와 함께 지난달 26일부터 5일간 필리핀 말라본에서 22번째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의료봉사활동에는 제주항공 임직원과 열린의사회 소속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치과 등의 의료진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30명이 참여해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와 약 처방, 기초보건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활동에는 제주항공과 열린의사회 뿐만 아니라 제주항공의 공식 SNS를 통해 모집된 일반인 자원봉사자 2명도 참여해 봉사활동에 의미를 더했다. 한편 제주항공이 소속된 애경그룹의 계열사인 애경산업은 지역 주민에게 전달할 치약, 칫솔 1000여 개를 후원하기도 했다. 제주항공과 열린의사회는 2011년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12년간 제주항공이 취항하는 아시아 각 지역에서 해외 지역 사회를 위해 의료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제주항공은 의료진의 항공 이동 편의를 제공하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직원들로 자원봉사단을 꾸려 현지에서 공동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사진제공 제주항공

삼성전기, 포항공대 교수·학생 초청 ‘웰컴데이’ 신소재공학과 40여명...MLCC 공정라인 등 견학

삼성전기는 지난달 28일 부산사업장에서 포항공대 신소재공학과 교수와 학생 40여 명을 초청해 ‘차세대 소재·부품 개발 인재 웰컴데이’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포항공대 교수진과 학생들은 부산사업장에서 삼성전기의 적층세라믹캐패시터(MLCC)와 반도체 패키지가공 등 첨단 기술 설명을 들었다. MLCC가 생산되는 핵심공정라인도 견학했다. 포항공대 학생들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cm인 정육면체 속에 1um(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면지보다 작은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되는 클린룸에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전기는 소재·부품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지난해 11월 포항공대와 채용연계형 인재 양성 협약을 체결해 소재·부품 맞춤형 교육 과정 운영 및 과제를 연구하고 있다.



포항공대 학생들이 삼성전기 부산사업장 초청 웰컴데이 행사에서 회사 관계자로부터 생산공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기
현재 삼성전기는 포항공대와 MLCC·반도체 패키지가공 관련 요소 기술 등 9개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js62@

손흥민, EPL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 리버풀전 1골 1도움, 정규리그 10골 5도움...팀 패배로 빛바래

‘특급 골잡이’ 손흥민이 EPL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의 ‘대기록’ 세웠지만, 팀은 아쉽게 패했다. 토트넘은 1일(한국시간)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리버풀과 2022~2023 EPL 3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 결승골을 허용하고 3-4로 아깝게 졌다. 토트넘(승점 54·골 득실 +6)은 이날 패배로 리버풀(승점 56)에 5위 자리를 내주고 6위로 한 계단 내려앉으며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의 꿈을 사실상 접었다. 또한 다음 시즌 유로파리그 경쟁에서도 밀릴 위기를 맞았다. 토트넘은 7위 애스턴 빌라(승점 54·골 득실 +4)와 승점이 같지만, 골 득실에서 겨우 앞선 가운데 3경기나 덜 치른 8위 브라이턴(승점 52)에도 승점 2점차로 쫓

기는 불안한 처지에 놓였다. 손흥민은 리버풀을 상대로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이번 시즌 정규리그 10호골을 기록, EPL 개인 통산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다. 2015년 8월 토트넘에 입단해 EPL 첫 시즌 정규리그에서 4골을 터트린 손흥민은 2016~2017시즌 14골, 2017~2018시즌 12골, 2018~2019시즌 12골, 2019~2020시즌 11골, 2020~2021시즌 17골, 2021~2022시즌 23골(공동 득점왕)을 터트렸고, 올 시즌에도 10골을 채워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이뤄냈다. 더불어 손흥민은 EPL에서 개인 통산 103골을 기록, 크리스티아누 호날두(103골)와 함께 역대 EPL 최다득점 랭킹 32위에 랭크됐다. 손흥민은 대기록을 세웠지만, 토트넘은 전반 15분 만에 3골이나 헌납하는 최



손흥민이 1일(한국시간) 리버풀전에서 팀의 두 번째 골을 터트린 후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고 있다. EPA연합뉴스
악의 경기를 펼쳤다. 최근 4경기 연속 무승(1무 3패)에 빠진 토트넘은 4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승점 63)와 격차가 9점으로 벌어져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출전권(1~4위) 확보가 더욱 힘들어졌다. 정대명 기자 dmjang@

인사

◆인사혁신처 ◇과장급 전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획부 교육지원과장 황일청

부음

- ▲곽영식 씨 별세, 곽준원(삼표그룹대외협력본부 홍보팀장) 씨 부친상 = 4월 30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3일 오전 5시 30분, 장지 국립대전현충원, 02-2227-7500
- ▲제순이 씨 별세, 윤병호(전 동원산업이사) 씨 부인상, 윤창원(서울디지털대 교수)·영애 씨 모친상, 전재은 씨 시모상 = 1일, 인천 길병원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3일 오전 10시, 032-460-9408
- ▲정진기 씨 별세, 양원희 씨 남편상, 정윤재(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혁준(아기타국제교양대 교수) 씨 부친상, 김기한(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 씨 장인상 = 4월 30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3일 오전 10시, 02-2072-2022
- ▲방성훈 씨 별세, 방진원(강남대학교 연구교수·서진아트스페이스 대표·서울도시건축전시관 운영위원) 씨 부친상 = 4월 29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3일 오전 8시, 02-2072-2020
- ▲최미자 씨 별세, 노진석(사업) 씨 부인상, 노예지·중현(LG에너지솔루션 사원) 씨 모친상, 김영준(전자신문 기자) 씨 장모상, 김수정 씨 시모상 = 1일, 서울직접사병원 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3일 오전 5시, 02-2002-8444
- ▲이돈익 씨 별세, 이창욱(NH투자증권 노조위원장) 씨 부친상 = 4월 30일, 전남 순천시 성가톨릭병원 장례식장 VIP 3호실, 발인 3일, 061-900-4444

논현로



김재수
동국대 석좌교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만찬 등 비공식행사도 중요 외교 정상회담 때 '쌀밥' 식사 해볼만 과잉생산된 쌀 소비에도 효과적인 해외순방시 K-푸드 행사 필요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숨 가쁜 일정으로 이루어졌다. 최고의 우방국인 미국의 '국빈 방문' 자체가 우리 외교에 큰 의미를 지닌다. 외교, 안보, 경제, 통상 등 많은 분야에서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여겨진다. 모든 초점이 대통령 공식 회담과 행사에 집중되다 보니 만찬이나 비공식 행사가 소홀히 취급되고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지기 쉽다.

만찬도 중요한 외교 행사다. 공식 만찬 외교는 대통령과 국민의 품격을 나타낸다. 참석자 선정, 메뉴선택, 대화 주제, 연예인 공연, 테이블 매너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철저한 준비와 연습도 필요하다. 미국 정치 드라마 'House of Cards' (하우스 오브 카드)를 보면 인권을 확대하는 소련 대통령을 국빈 만찬장에서 교묘하게 조롱하는 장면이 나온다. 초청 가수가 건배주를 바닥에 버리고 퇴장하거나 옆자리에 싫어하는 인사를 배치해 은근히 '옛'을 먹이기도 한다. 물론 드라마미기는 하나 외교현장에서 가끔씩 일어난다. 정상회담에서 식탁 의전은 상대방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중국 방문에서 수모에 가까운 '흔밥 8끼' 식

사를 했다. 명백히 '의전 총재'로 볼 수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었고 두고두고 머릿속에 남는다.

필자는 과거 미국 워싱턴 D.C. 소재 한국대사관에서 농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행사를 여러 번 치렀다. 열심히 준비했으나 중요한 밤미 행사가 워싱턴 D.C. 현지 신문에 단 한 줄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대통령 수행단의 과오로 밤미 성과를 희석시킨 경우도 있었다.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대화는 긴장을 풀어주고 양국 간 갈등도 해소해준다.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한미 간 긴장이 고조될 때 필자는 미국 농무장관 부부와 농무부 간부들을 한국 대사관에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이태식 주미대사와 조한스미 농무장관의 화기애애한 식탁 대화는 쇠고기 로 인해 고조된 양국 간 갈등을 상당 수준 완화했다.

쌀을 두고 한미 간에는 역사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다. 6·25 전쟁과 식량 원조, 보릿고개 극복, 쌀 연구개발에도 미국 도움이 컸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한미 간 쌀 협상, 한미 FTA 등 양자나 다자간 통상 협상에서 쌀이 주요한 협상 이슈가 됐다. 국제협력과장과 통상협력과

장, 주미대사관 농무관으로 필자는 미국 대표들과 수차례 쌀 협상을 했고 우여곡절도 많았다. WTO 협정에 의거해 5만 1000톤에서 시작한 쌀 최소 시장 접근 물량(MMA)은 두 차례의 관세화 유예로 급격히 늘어 2014년에는 40만8000톤으로 국내 생산량의 10%에 이르렀다. 더 이상 쌀 수입 증대는 막아야 한다는 판단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으로 2015년 쌀을 관세화해 더 이상 쌀 수입물량은 증대되지 않았다. 40만8000톤의 쌀 수입물량 중 약 32%(13만 톤)가 미국산이다.

한미 간 정상회담이 있을 때마다 '쌀밥'을 먹는 행사를 기대했으나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양국 정상이 쌀밥을 먹으면서 대화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이 장면을 찍은 사진을 보고 싶은 이유이다. 조만간 실천되기를 기대한다. 정안 되면 윤 대통령의 지난 일본 방문 시와 같이 공식 행사 후 양국 정상 간에 화합의 성격을 담은 '쌀 푹탄주' 비슷한 이벤트도 좋다. 최근에도 생산이 과잉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두고 많은 논쟁이 있었다. 야당의 일방적 단독처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회재심의 부결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테이블 매너도 중요하다. 각종 정상회담에서 소탈하고 다채로운 색상의 '재킷 패션' 복장을 좋아하는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도 백악관 공식 방문 시에 검은 정장 차림 복장으로 입장했다. 며칠 전 지인으로부터 과거 한국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 테이블 매너에 어긋나는 장면을 담은 몇 장의 사진을 받았다. 허리를 꾸부정하게 굽힌 채 상대방 잔을 쳐다보며 건배하는 장면이 거슬렸다. 식탁에 앉은 우리 대표단은 머리를 숙이고 음식 먹기에 열중하는 사진도 있었다. 대화에 치중하지 않고 먹는 데만 열중하는 모습은 오로지 '먹기 위해 산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 식사 시에는 가능한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그릇된 식사 매너다. "대화에 치중하지 않고 음식에 집중하면 짐승 취급받는다"는 소리도 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한류 열풍이 세계를 휩쓴다. 대통령보다 더 많은 관심이 모이고 인기가 높은 것이 한류 스타다. 한류 스타와 한류 열풍을 'K-푸드' 열풍으로 변화시키자. 쌀밥이나 김밥을 먹거나 쌀떡, 쌀과자, 쌀 음료, 쌀 술 등 다양한 쌀 가공 제품을 활용한 'K-푸드' 행사가 대통령 해외 순방 시 필요한 이유이다.

김해동의 기후 이야기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

환영받지 못한 탄소중립녹색성장案

이투데이, 말투데이

문재인 정부는 2021년 11월 유엔에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감축할 온실가스 감축목표량(NDC)을 제출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고 탈탄소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총괄해 탄소중립 기본법안을 만들었다. 그 법령에 따라 올해 3월 21일에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안'이 나왔다. 그런데 기본계획은 시민사회와 야당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다. 이 기본계획이 나오기까지의 경과를 살펴보면 그것이 반발을 부르고 있는 이유가 드러난다.

산업체 배출량 감축목표 낮춰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최초의 국제법은 1997년 교토에서 만들어지고 2008년에 발효된 교토의정서다.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195개국 중에서 산업화 이후부터 현재까지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이 많은 선진 37개국에만 의무감축을 부과했다. 이 법의

효력은 5년간(2008~2012년)만 유효한 한시적인 것이었다(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 만들기에 실패한 탓에 이 법의 효력은 결국 2020년까지 연장됐다). 선진 37개국의 연간 온실가스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약 30%에 불과했고, 이들의 감축목표량도 1990년 대비 5.2%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교토의정서가 성실하게 지켜지더라도 기후변화는 되돌릴 수 있는 수준과는 거리가 한참 멀었다.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당사국 모두가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대폭 감축해 지구의 온도상승을 의미 있게 줄이기로 합의한 국제법이 2015년에 합의된 파리협정이다. 애당초 파리협정은 유럽연합에서 제기한 기후목표(climate target)인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억제하기로 합의했다. 그 목표에 맞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모두가 2030년까지 달성할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량(NDC)을 유엔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5년마다 더 강화된 안을 다시 제출하는 체제).

그렇게 2015년에 첫 번째 NDC가 제출됐다. 2018년에는 지구평균온도 상승 억제 목표량을 애초보다 2배로 강화하자는 합의가 이뤄졌고 그에 맞춰 각국은 첫 번째 제출한 NDC보다 훨씬 강화된 NDC를 다시 제출해야만 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로부터 훨씬 강화된 NDC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렇게 제출한 것이 2021년 11월에 나온 두 번째 NDC였다. 2018년 대비 40%를 줄인다는 것이었고, 어느 항목에서 얼마나 줄일 것인지를 상세히 제시했다.

탄소포집·저장 기술은 실현 불투명

이 안은 2024년부터 2년마다 '격년 투 명성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해 검증받아야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문재인정권은 '탄소중립기본법'을 만들었고 그 법안은 2022년 3월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5년 주기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구체적인 방법과 탈탄소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번에 나온 기본계획이 환영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에 압도적인 책임이 있는 산업체의 배출량 감축 목표량을 14.5%에서 11.4%로 낮춘 것과 온실가스 감축을 현 정부 임기 중에는 아주 조금만 줄이고 실질적 감축은 그 이후로 미뤘다는 사실에 있다. 감축 달성도 원전 확대에 의존한 발전부문과 제도적·기술적 불확실성이 높은 미래 기술(탄소포집과 저장 및 재사용)과 국제 감축 부문에 떠넘겼다는 점도 반발을 부르고 있다. 탈탄소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비난을 받고 있다.

이들 문제를 다루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도 정부 장치관과 몇몇 에너지 전문가로 구성했다. 애당초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만들려는 생각은 있었을까? 여전히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정부의 처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레오나르도 다 빈치 명언
"사람이 사람답게 살 힘은 오직 의지력에서 나온다. 물그릇이 있어야 물을 뜰 수 있다. 의지력이 바로 그런 물그릇이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천재 미술가·과학자·사상가다. 15세기 르네상스 미술은 그에 의해 완결된 완성성에 이르렀다고 평가받는다. 조각·건축·토목·수학·과학·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에 재능을 보인 그의 대표작은 '모나리자' '성 안나와 성 모자' '최후의 만찬'. 오늘날은 그가 숨진 날이다. 1452-1519.

☆ 고사성어 / 견강부회(牽強附會)
가당치 않은 말을 끌어다 자기 주장이나 조건에 맞도록 합리화하려는 것을 비유한다. 송나라 역사가 정조(鄭樵)가 통지(通志) 총서(總序)에서 "동중서가 음양학으로 이설을 창도하여 '춘추'에 억지로 끌어다 [董仲舒以陰陽之學 倡爲此說 本于春秋 牽強附會]" 불인 음양설을 비판해 동중서의 주장보다 더 깊고 넓은 사유의 세계가 있음을 강조한 데서 유래했다.

기자수첩



정성욱 / 자본시장부

'출궁기 스타트업', 모태펀드 확대를

"지난해 초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기업가치를 낮춰 겨우 다음 시리즈 투자로 넘어간 상태다."

최근 가까스로 시리즈C 투자 유치에 성공한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최근 연이은 과로로 목이 쉬었다. 시중의 자금이 마르면서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 압박감이 몸을 죄어온 탓이다. 미국 진출 사업이 궤도에 오르는 듯했던 지난해 초만 해도 회사 내 분위기는 활기가 넘쳤으나 직원들

의 이탈이 이어지면서 이젠 회사의 생사를 고민하게 됐다.

보릿고개를 맞은 벤처·스타트업 업계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자금줄이 막히면서 장밋빛 미래를 꿈꾸던 기업들도 시리즈A 투자에서 B 투자로 넘어가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기업가치를 대폭 낮추는 결단을 통해 일단 살아남는 것에 초점을 맞춘 곳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한 VC 관계자는 "금리인상을 맞아 지난해 말부터 몸을 사리는 분위기"라며 "시리즈 A, B 수준 기업들의 경우 투자자금 유치가 원

활하지 않아져 회사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곳이 늘었다"고 말했다.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우려가 커진 지난해 말 이후 실리콘벨리은행(SVB) 파산과 크레디트스위스(CS) 위기 등 악재가 연이어 터진 영향이다. 스타트업 사이에선 "거품이 있었던 벤처 생태계가 이번 기회로 자정될 것"이란 자조 섞인 말도 나온다.

VC업계에선 마중물 역할을 했던 모태펀드 출자 규모가 줄면서 '양극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올해 모태펀드 예산은 3135억 원으로 책정돼, 지난해 5200억

원에서 40% 줄었다. 안 그래도 투자기조를 보수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모태펀드 규모가 줄자 투자 결정을 더 미룰 수밖에 없어진 셈이다.

업계에선 모태펀드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하면 잠재력이 충분한 기업들이 이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태펀드가 확대되면 시장은 기업의 눈높이가 내려올 때 오히려 과감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벤처투자시장에 10조5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경기 하강기를 맞아 민간투자 유입이 충분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 시사상식 / 노 랜딩(no landing)
'무착륙'이라는 말.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는 '연착륙'을 할지, 경제를 침체로 빠뜨리는 '경착륙'을 할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며 아예 경제 침체 자체가 없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 용어를 썼다.

☆ 속담 / 빠른 바람에 굳센 풀을 안다
드센 바람 속에 꿏꿏이 서 있는 굳센 풀을 알아낼 수 있다는 뜻으로, 굳은 의지와 절개는 시련을 겪고 나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말.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각자도생 시대, 발전전략 바뀌어야 한다

최근의 세계무역질서를 두고 신(新) 중상주의, 자국중심주의, 탈(脫)세계화 등 다양한 표현이 등장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강대국들이 국제규범에 구애받지 않고 자국에 유리한 방법을 쓴다는 점이다. 이 결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큰 위협에 처하고 있다.

무역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1930년대 세계대공황의 원인이 된 미국의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기억할 것이다. 미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2만여 개 수입품에 평균 59%, 최대 400%의 관세를 부과한 법이다. 이 법이 시행되자 교역상대국들도 보복관세와 수입제한조치를 취하게 돼 경제공황이 전 세계로 확산됐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1947년 23개국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체결해 관세장벽과 수입제한을 점진적으로 철폐하다가 1995년 강력한 실행력을 갖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전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WTO 체제의 핵심은 △국산과 외산제품 차별 금지 △자국산업에 특혜가 되는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 금지 △교역상대국이 국제무역규범을 위반할 경우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 등으로 요약된다. 세계무역은 이 다자주의 무역질서하에서 큰 발전을 해왔고, 우리나라도 그 혜택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강대국들의 정책을 보면 15-18세기 중상주의가 유럽을 휩쓸었을 때를 떠올리게 한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전 코트라 사장



무역질서 '자국우선주의' 뚜렷 경직적 노동시장·환경규제 풀고 정부지원 강화... 경쟁력 키워야

다. 미국의 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치로 내걸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등 교역질서를 자국에 유리하게 바꾸고, 중국과의 관세전쟁을 시작했다. 바 이든 행정부도 동맹국의 불만이나 피해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국중심주의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마찬가지다. 반도체·배터리·수소 등 전략산업의 자체 공급망을 갖추려고 미국과 비슷하게 작년부터 반도체법,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등의 입법절차를 밟고 있다. 중국은 또 어떤가? 서방국가들은 중국이 2001년 WTO 가입으로 다자주의 혜택은 누린 채 의무는 다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10개 첨단 중간재 산업의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까지 높이려는 '중국제조 2025 전략'을 추진하면서 기업들에 불공정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각종 반덤세장벽과 '귀차

오'(國潮)로 불리는 애국소비로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외 나라들도 정도 차이가 있을지언정 자국중심주의의 예외는 아니다. 세계는 이제 각자도생(各自廬生) 시대에 접어들었다.

앞으로도 국가 간 각자도생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게 바뀐 만큼 다자주의 무역질서를 전제로 한 우리의 경제발전 전략도 수정해야 한다.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취하지는 것이 아니다. 자유무역주의는 견지하되, 국제규범 때문에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미국과 유럽연합처럼 정부지원을 통해 미래 세계경제를 주도할 산업을 키워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이념적·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경제적이해관계가 같은 나라들과 협력해 원자재와 시장을 확보해야 한다. 또 국내에서의 경직적 노동시장과 과도한 환경규제를 개혁해 우리 기업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도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하되, 강대국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더 좋은 조건이 갖춰지도록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

찰스 다윈은 "경쟁에서 살아남는 종(種)은 가장 강하거나 똑똑한 종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한 종"이라고 했다. 지금의 각자도생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을 만들고 실행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소명이다.

사설

수출 7개월째 감소... 이리다 발병 난다

'수출한국'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4월 수출액이 496억2000만 달러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2% 줄었다. 작년 10월 이후 7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수입액도 전년 동월보다 13.3% 줄었다. 무역수지는 26억2000만 달러 적자로, 작년 3월부터 이어진 적자행진을 14개월째로 연장했다. 올 들어 4월까지 누적 무역적자액이 252억 달러다. 지난해 무역적자액(477억9000만 달러)의 절반을 넘어섰다.

수출 최대품목인 반도체와 최대수출국인 중국에서 탈이났다. 수출 비중이 20%에 달하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1.0% 감소한 63억8000만 달러에 그쳤다. 업황 악화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대중 수출역시 전년 동월 대비 26.5% 줄어든 95억2000만 달러에 머물렀다. 11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이다.

대중 무역은 더욱 큰 관심이 필요하다. 한국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가 내놓은 무역통계를 보면 올 1분기 한국의 대중 수출은 38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8.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국 전체 수입이 7.1% 줄었지만, 한국 감소 폭이 유난히 크다.

우리 경제 안팎엔 위기 신호가 가득하다. 올 1분기 국내총생산(전기

대비 0.3%)은 역성장을 면했지만 0%대로 부진하다. 눈길을 더하는 것은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다.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가장 오랜 기간 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 경상수지 역시 11년 만에 처음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다음 주에 나올 3월 경상수지도 흑자전환을 장담하기 어렵다.

경제 기초체력을 반영하는 원화 환율도 유독 약세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3월 말 대비 4월 말 원·달러 환율은 2.7%(35.8원) 급등했다. 미국 달러가 약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원화가 동반 약세를 보이는 이상 기류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는 것이다. 블룸버그 집계로는 세계 주요 16개국 통화 가운데 원화 가치 하락률이 가장 크다. 다소 무리하게 기준금리를 2연속 동결한 통화정책과 수출 부진 등이 맞물려 부작용을 빚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정부는 강력한 수출지원으로 출구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상저하고' 프레임에 희망을 걸면서 말잔치를 벌이거나 재정을 낭비할 단계가 아니다. 이리다 발병이 나고 골병이 들 수 있다. '수출한국' 재도약의 발판을 너무 늦기 전에 마련해야 한다. 규제 완화, 세제 부담 경감 등 기업들의 고충만 잘 처리해도 수출 생태계는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길을 잘 찾을 일이다.

AI의 습격, 전문직 '자격의 벽' 깨라

인공지능(AI)의 새로운 기능이 개발될 때마다 나오는 화두는 "그럼 인간의 일, 일자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이다. 2016년 알파고 쇼크 이후 7년 만에 우리는 또다시 챗GPT, GPT-4 등 생성형 인공지능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뛰어난 능력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알파고는 인간의 두뇌로 해결하기 어려운 계산을 '단순 반복적'으로 수행해 최적의 경우를 찾아냈다.

이후 단순 반복적 작업은 인간이 인공지능의 상대가 되지 못하게 됐다. 수많은 이미지에서 이상한 것(불량품이거나 압 등)을 찾거나 정확히 일치하는 것(얼굴 및 보행 패턴 인식 등)을 찾는 것은 인공지능에는 쉬운 일이 됐다. 더군다나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다. 결국 인간의 일이라는 것이 쪼개 보면 많은 '단순 반복적'인 작업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가 인공지능, 자동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닌 가하는 두려움을 갖게 했다. 그리고 많은 보고서가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위협에 경고하고 인공지능이 하기 어려운 일, 직업이 앞으로 유망하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인공지능으로 누구나 전문가 가능

당시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로 대체하기 어려운 직업으로 화가·조각가, 사진작가·사진사, 작가, 음악가, 애니메이터·만화가 등이 꼽혔다. 그런데 최근 등장한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런 전망을 무색하게 한다. 인공지능이 그린 이미지가

미래토크

이명호

미래학회 부회장
태재연구재단 전문위원



미술대회에서 수상하고, 심지어는 유명한 사진전에서 상을 받게 되자 출품자가 인공지능 작품이라고 실토를 하며 수상을 포기했다. 심사하는 전문가들조차 실체인 피사체를 찍은 사진으로 속은 것이다. 인간이 많은 시간의 훈련을 거쳐 도달하거나 숙달할 수 있는 기능이 인공지능에는 짧은 시간 안에 수없이 '단순 반복적'으로 훈련해 습득할 수 있는 기능이 된 것이다. '전문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제는 챗GPT, GPT-4 등 생성형 인공지능이 고소득 전문직을 위협할 것이라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다. 많은 자료와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는, 주로 컴퓨터로 일하는 고학력 전문직의 대표적 직업은 의사, 변호사, 경영인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분야의 전문직 시험을 인공지능이 높은 점수로 통과했다. 인공지능은 이미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경험치)을 보여주었는데, 여기에 더해 기본적인 지식과 사고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조만간 인공지능 기반의 법률, 의료, 경영 상담 서비스 등 등장하고 각광받게 될 것이다. 그럼 인공지능으로 전문직 일자리도 위협

을 받게 될까? 아마 당분간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전문가들의 권한, 자격이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득권이라는 것은 사회적, 정치적 투쟁의 영역이다.

기득권 안주 말고 사회발전 앞장서야

그런데 전문직의 기득권이 사라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전문직이 사라진다는 것인가?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역사를 보면 명확하다. 역사적으로 지식은 권력이었다. 인쇄술의 등장 이전에 지식은 소수의 성직자, 관료, 귀족의 전유물이었다. 책을 대량으로 찍어 내는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지식은 소수 권력층의 전유물에서 새로운 더 큰 집단, 학자와 전문가는 물론 평민도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인터넷의 등장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식 생산과 유통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그렇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고급 지식은 전문가의 전유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제 전문적인 지식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누구나 갖추고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있다. 이는 전문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시대를 의미한다. 역사의 방향은 명확하다. 빨리 전문가의 기득권, 자격의 벽을 허물고 전문가가 늘어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사회가 발전하는 방향이다.

노무, 특!

휴게시설 설치 선택 아닌 필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작년 8월 사업장들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올 8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 일부에도 적용된다. 의무대상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과태료 회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대법원(2023년 4월 13일 선고 2022두47391 판결)은 콜센터 상담원의 과로에 의한 사망 관련 재판에서 "휴게장소의 부재, 3교대 중 석간조의 근무형태와 그에 따른 피로도 등 근로 강도, 상시적으로 부족한 수면시간 및 민원응대 매뉴얼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작업 환경" 등을 근거로 대상 근로자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해 '휴게장소의 부재'를 근로자 승소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뇌혈관·심장질환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에서도 만성적 과로 판단 근거 중 하나로 '휴게시설 유무'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바 소속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차원 및 사용자 책임과 관련

해서도 휴게시설 설치의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국가에 따라 '온도, 조도, 소음, 면적, 위치, 시설장비, 거리, 층고, 환기' 등 휴게시설 설치기준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만약 영세한 사업장의 형편으로 법정 기준에 부합하는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별로 최대 3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의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이 불과 8개월도 남지 않았다. 법정기준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등 준법은 안전보건체계 구축의 기본이므로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기준에 부합하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50인 미만 사업주들은 더 나아가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체계관리 구축 컨설팅'을 신청해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기 바란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덕현	주필 이승현	편집국장 박성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만5000원 1부 8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지금, KB 솔버톤에서
청춘 토론대결극

대한민국 청년들이
토론으로 치열하게 아이디어를 다투는
42시간 19분 5초의 시간

설득의 기쁨, 뜻밖의 좌절 그리고
동료와 함께 나누는 승리의 환희까지

세상을 바꾸는 토론의 장
2023 KB 솔버톤 대회

지금 KB와 함께
새로운 희로애락을 경험해 보세요

Korea Better
KB금융그룹

SOLVEATHON

KB 솔버톤 대회란?
KB금융그룹의 미션 '세상을 바꾸는 금융'을 주제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참여형 솔루션 기반 문제 해결 대회'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시상 혜택은 QR코드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참가 자격 및 대상

대상 : 동일한 대학(원)에 재/휴학 중인 국내외 대학(원)생
팀 구성 : 4인 1팀

대회 주제

예선 : KB금융그룹 미션 '세상을 바꾸는 금융'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 창출 방안

예선 접수 일정

4월 5일(수) ~ 5월 31일(수)

참가 신청

홈페이지 내 참가신청서 제출 및 필수 서류 이메일 제출
* 자세한 사항은 대회 홈페이지 (www.kbsolveathon.org) 참조

***b KB금융그룹**